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과
기대 및 보람에 관한 이야기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박 나 래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과
기대 및 보람에 관한 이야기

권 경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박 나 래

인 준 서

박나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영아들과 생활하며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대와 요구는 무엇이며, 영아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갖는 기대와 요구는 무엇인가?

셋째,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0세 영아를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 10명으로 201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0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각각 2회씩, 1회 60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저널 쓰기를 통해 연구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데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범주화 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거쳐 유아교육 전문가의 조언 및 협의의 과정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교사들은 영아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애착관계 형성하기,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들과 소통하기, 일상생활 및 기본적 욕구 지원하기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즉, 만 0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습 및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영아교사의 역할 수행이 미숙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수의 영아를 보육하는 상황에서 낮잠, 식사, 배변 및 기저귀 갈이의 개별적인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작은 사건사고에도 오해를 받으며 교사를 의심하는 시선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적인 기대와 달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과와 반복적인 돌봄의 과정으로 인해 영아반 교사로서 무기력감과 교육적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 양육태도와 기대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로 인한 것으로 만 0세 영아반 교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대와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교사들은 만 0세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 만 0세 영아반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침서 개발,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특히 만 0세 영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라고 있었으며, 영아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만 0세 영아의 특성상 만 1~2세 영아와는 다른 발달적 특성과 개인차가 나타나며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만 0세 영아반만을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예비교사들의 두려움과 현직교사들의 역할수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과 장시간 종일보육에 대한 대체인력의 지원, 영아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의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로 인해 영아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사와 영아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셋째,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기쁨과 보람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제 2의 엄마’ 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영아들과 생활하며 느끼는 보람, 함께 공감해주는 팀티칭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보람, 교사를 믿고 지지해 주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보람으로 나타났다.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엄마처럼 자신을 따르는 영아들을 보면서 교사 또한 엄마의 마음으로 영아들의 성장과 변화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감동을 느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보람과 함께 영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치유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함께 의지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팀티칭 교사를 만나 한 반을 운영해 나가면서 교사들은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교사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으며, 교사를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인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영아반 교사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자	5
II. 이론적 배경	7
1. 영아의 발달특성	7
1) 신체발달	8
2) 인지발달	10
3) 언어발달	11
4) 정서발달	13
5) 사회성발달	14
2. 영아반 교사	16
1) 영아교사의 역할	16
2) 영아교사의 근무환경	20
3. 선행 연구	23
III. 연구방법	29
1. 연구 참여자	29

2. 연구절차	34
3. 자료수집	35
4. 자료분석	37
IV. 연구결과 및 해석	39
1.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39
1)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애착관계 형성하기	39
2)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들과 소통하기	43
3) 영아의 일상생활 및 기본적 욕구 지원하기	46
4)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주위의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	57
5) 영아반 교사로서 느끼는 교육적 회의감	59
6)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62
2.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갖는 기대와 요구	66
1) 만 0세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	66
2) 만 0세 영아반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침서 개발	70
3)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73
3.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보람	81
1)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또 다른 이름 ‘제2의 엄마’	81
2) 함께 공감해 주는 팀티칭 교사	90
3) 교사를 믿고 지지해 주는 학부모	93
V. 논의 및 결론	98
1. 논의	98
2. 결론 및 제언	10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	30
<표 2> 심층면담 질문목록	3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사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출산율 저하,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무상보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영아보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만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2년 전체 영아 중 약 12%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반면 2013년에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약 63%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해 왔고, 그 중 만 0세의 영아의 경우 2002년 약 2%에 불과했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10년 사이에 약 38%까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이렇듯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이 점점 하향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국가의 제도 안에서 여성의 중요한 의무와 책임으로 남아있던 영아양육에 대한 부담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기관에 전가되고 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질적 보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다. 교사는 현재 영아의 성장과 발달·학습과 관계 뿐 만 아니라 전 생애의 성장·발달·학습·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aikes & Edwards, 2009; Recchia, 2012). 영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로, 보육교사에게는 영아의 체계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전문적 자질이 요구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역할은 과거의 단순한 ‘보호’의 차원을 뛰어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영아와 좀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애착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는 효과적인 보육을 결정하는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르치는 역할과 보호 및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이진화, 2001).

옹알이를 하는 6개월 영아에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위는 보육이지만 “어 으 으” 하는 옹알이를 들으며 엄마 또는 돌보는 이가 “어 엄마 ” 또는 “어흥 호랑이” 하며 말을 걸어 준다면 그것이 교육이 될 것이라는 이원영(2004)의 말처럼 영아반 교사는 단순히 보호자의 역할만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더불어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로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의 영아들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교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영아들의 성격 형성이나 전인적인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양보경, 2007). 특히 교사들의 표정, 행동, 말투 등을 통한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아반의 경우에는 유아반과는 다르게 월령에 따라 차이가 크고, 개별영아에 따라 발달의 속도 및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며, 개별영아에게 맞는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김현호, 2010) 영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영아의 욕구와 의사를 이해하고 교사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영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출생 후 1년 동안 영아의 보육은 다른 연령대의 영아보육과 전혀 다른 특징이 있으며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만 0세는 신체리듬에 맞춘 수유와 식이를 통해 영양을 섭취하고, 신체발달을 도모하며, 어머니를 비롯해 돌보아 주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한다(이순형 외, 2010). 그러므로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영아의 정서적 지원과 함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이해하고 영아의 흥미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연령에 비해 안아주기, 기저귀 갈기와 같은 신체적 돌봄과 강도 높은 정서적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김지현, 양옥승, 2009). 생애 첫 일 년간에 시작되는 경험들이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결정적임을 가정할 때(김윤자, 2005), 만 0세 영아교사는 환경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자로서 영아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현경, 2003).

그러나 영아반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아직까지 교육이 아닌 보살핌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스스로도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보육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직전교육의 내용이 주로 3-5세 유아의 발달과 교육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영아교사들은 영아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서 영아를 보육하고 있으며(박병희, 2002), 영아반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정빈, 김은심, 유선희, 2010). 이러한 보육교사의 어려움은 곧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효과로 인해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경림, 2005), 더 나아가 영아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연령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영아반 교사들의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아반 교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만1~2세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박정빈, 김은심, 유선희, 2010), 영아반 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한유미, 오경숙, 2010),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를 살펴 본 연구(김지윤, 2009),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 교사-영아, 교사-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연

구(김윤숙, 조희숙, 2011), 미혼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아반 교사의 역할과 갈등에 관한 연구(양지영, 2007),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조미숙, 2015) 등 영아반 교사의 스트레스, 어려움, 갈등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서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에 대해 탐색한 연구(탁정화, 황해익, 2012), 경력에 따른 영아반 교사들의 어려움과 관심사, 현직교육 요구에 관해 고찰한 연구(김순환, 전셋별, 2010), 영아반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기대 및 요구를 살펴본 연구(이운영, 배지희, 김은혜, 2013), 영아반 교사의 정서적 어려움과 정서적 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여인우, 2013) 등 영아반 교사를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만 1세 영아반 교사로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살펴본 연구(박남희, 2013),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에 대해 탐색한 연구(최지현, 2012),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보람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신수진, 2015)의 몇몇 연구에서 보람과 기쁨에 관련된 긍정적 측면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또한 그들이 영아들을 보육하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요구, 그리고 보람과 관련된 질적인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만 0세 영아보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아들의 질적 보육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만 0세 영아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이 영아들과 생활하며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대와 요구는 무엇이며, 영아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교사들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아 삶의 질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과 기대 및 보람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갖는 기대와 요구는 무엇인가?

셋째,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가?

3. 연구자

연구자는 초임시절 유아반 담임을 맡아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영아전담어린이집에 입사하여 만 0세, 만 1세, 만 2세 영아의 담임을 맡아 근무하였는데 그 중 만 0세 영아의 담임을 2년간 하게 되면서 만 1세, 2세와는 다른 특성과 일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연구자는 유아반과 영아반을 모두 경험하였고 경력자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만 0세 담임을 맡게 되면서 초임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다.

당시 연구자는 미혼이었고 만 0세 영아에 대해 배우거나 실습해 본 경험이 없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그 동안 배웠던 이론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교사로서의 생활이 기대와는 너무 달랐고 그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회의

감이 들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막막하고 당황스러웠던 순간에 경력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면서 교사 또한 만 0세 영아반에 적응하느라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자는 영아들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사로서 기쁨과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을 위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만 0세 영아반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영아와 기어 다니는 영아, 혹은 뒤집기를 하는 영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차가 크고 매 순간 교사의 손을 필요로 하는 만 0세 영아들에게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만큼 만 0세 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연구자는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그들이 영아들과 생활하며 겪는 직접적인 어려움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대와 요구는 무엇이며, 영아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만 0세 영아들을 처음 경험하는 교사들도 연구자와 같이 시행착오와 적응과정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장에 있는 만 0세 영아반 교사와 예비 교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아의 발달특성

영아기는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다지며,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원활한 발달은 인간 생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결함은 이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박유미, 2008) 영아를 올바르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과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출생 후 첫 1년은 모든 감각운동기관이 정상적으로 발달되면서 지각·인지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이 기간에 발달되는 뇌신경망은 전체의 60%가 완성된다(박덕승, 2007). 또한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 고개도 못 가늘 정도로 신체 조절력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영아가 점점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하고, 가슴을 들어올리며, 기기 시작하고, 앉고, 서고, 걷기를 1년 동안 해내게 된다(노희연, 2014). 이렇듯 놀랄만한 속도로 신체발달이 진행되는데, 성장에는 영아마다 개인차가 있다. 이때의 영아들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전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여 타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게 하며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유나영, 2012). 즉, 만 0세 영아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몸짓, 울음, 표정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생후 1~2년 동안은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자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과 주 양육자에 대한 의존 사이에서 애착의 형성, 분리 불안과 같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극심해지

기도 한다(조복희, 2014).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기초를 다지게 되며, 인지발달에 있어서도 가장 큰 성장을 이룬다. 이러한 0세 영아의 모든 영역에서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과 함께 다른 연령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0세아 보육은 영아들의 개인차에 의한 개별적 특수성이 강조된다(김미나, 2015).

따라서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각 월령에 따른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함께 심리적, 생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 영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만 0세 영아는 다른 연령에 비해 보육의 질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성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으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만 0세 영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발달

0세아는 일생을 통해 신체 및 운동발달에 있어서 가장 발육이 왕성하며 발달적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 출산시의 평균체중은 3.3kg이며 보통 생후 3개월이 되면 출생 시 체중의 2배, 1년이 지나면 출생 시기의 3배 정도로 증가하고 출생 시 신장은 약 50cm이며, 생후 1년이 되면 1.5배로 성장한다(대한소아과학회, 2007).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신체발달 중 대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영아기의 가장 눈부신 발전이라고 한다면 고개도 못 가늘 정도로 의존적인 영아가 뒤집기, 기기, 앉기, 서기, 걷기, 달리기 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다는 점이다(노희연, 2014). 외형적인 발달과 더불어 태어나서 몸도 가누기 어려웠던 영아는 차츰 몸을 조절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권민균, 2005). 영아는 생후 1개월이 되면 머리를 앞으로 가누고, 3개월경에는 가슴을 들고 팔을 사용할 수 있으며, 3~4개월에는 몸을 뒤집고, 6개월경에는 도움 없이 혼자 앉고, 7~8개월에는 기어 다니며, 8개월에는 혼자 서고 12~13개월에는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된다(이순형 외, 2010). 이러한 발달의 과정은 영아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동일한 순서를 거치게 된다.

또한 대근육이 발달해감에 따라 소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손가락과 같은 작은 근육을 말한다. 출생 시 신생아는 잡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은 없으며, 6개월이 되어야 손을 뻗어 물체를 잡을 수 있는데 영아는 물건을 쥘 때 손 전체로 쥐다가 그 다음에는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고, 10개월이 지나면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작은 물체를 집을 수 있게 된다(정옥분, 2004; 유효순, 최경숙, 2006). 이 무렵에 영아는 바닥에 떨어진 먼지나 작은 물체 등을 집어 올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소근육의 발달과 동시에 영아는 환경과 상호작용 하며 탐색의 폭을 넓혀 나가게 된다.

이처럼 영아들은 대·소근육의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딱 걸음마를 시작하는 영아들에게 있어서 대근육의 발달로 인해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게 하며, 소근육의 발달과 함께 사물을 잡거나 입에 넣어 보면서 주변의 사물과 세상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노희연(2014)은 영아기에 제공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 소근육 활동은 영아기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영아기에 제공되는 체계적인 대·소근육의 활동은 영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지발달

만 0세 영아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감각운동을 통한 지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 또한 영아들은 사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익히며,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물을 탐색하는 동안 흥미를 갖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발달을 경험한다(김정미, 2002).

Piaget에 의하면 생후 2년 동안을 감각운동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영아는 감각적인 반응이나 탐색활동을 통해 정보를 조직함으로써 환경을 알아가게 된다. 그는 감각운동기를 6개의 하위단계로 나누었는데 영아는 각 단계마다 다른 인지적 발달을 보인다.

출생 후 1개월까지 영아는 빨기반사, 잡기반사와 같은 반사적 행동에 의존하여 외부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2~4개월경에는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반사행동을 하며, 4~8개월에는 자신의 행동 자체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건과 대상에 열중하는데 이때 우연히 어떤 행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김익균 외, 2003; 이순형 외, 2010). 예를 들어 우연히 딸랑이를 흔들어 소리가 났을 경우, 영아가 흥미를 느끼게 되면 다시 한 번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딸랑이를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유효순, 2013). 그리고 8~12개월이 되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많아지며 미숙하나마 대상영속성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상영속성이란 사물이 우리의 바람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이영 외, 2009), 이 시기의 영아가 즐겨하는 까꿍 놀이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Piaget(1977)는 영아기에 대상영속성 개념이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이를 통해 물리적 개념이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12~18개월의 영아는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다양한

탐색활동을 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얻어 내려고 노력한다(장영희, 2000). 18~24개월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상하여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정신적 표상, 가상놀이, 지연모방이 가능하다(유구종, 조희정, 2007).

이와 같이 감각운동기의 영아는 주변 탐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반사적 행동과 목적지향적 행동, 표상적 사고, 지연모방, 대상영속성 개념, 가상놀이 등의 특징을 보인다.

3) 언어발달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을 터트린다. 처음 영아의 울음은 단순한 의미의 반사활동이지만 그 후에 나타나는 울음의 의미는 다르다. 울음은 곧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인 것이다. 이렇듯 영아는 출생 직후부터 울음을 비롯하여 몸짓, 표정, 눈짓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해 나가기 시작한다(박경희, 2015). 영아의 언어발달은 대부분 동일한 단계를 거치지만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다.

영아기 언어발달의 첫 단계는 바로 울음이다. 울음은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양육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후 1개월까지의 울음은 분화되지 않은 울음소리로 이 시기 영아의 울음은 배가 고파서인지,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인지, 기저귀가 젖어서인지 잘 구분할 수 없지만 그 후에 울음은 점차 분화되기 시작하여 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이순형 외, 2010).

영아에게 웅얼이는 의사소통의 두 번째 수단으로,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하여 6~8개월 사이에 절정에 이르며 생후 9개월 정도가 되면서 주위 사람들의

말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한다(유효순, 2013). 10개월경에는 자음이 출현하는데, 이는 웅알이가 대화처럼 길게 연결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억양이 있고 몸짓이나 눈맞춤이 있다(김익균 외, 2003). 이때 영아는 주변의 반응을 얻게 되면 점차 그 소리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이러한 주변 인물로부터의 강화를 통해 웅알이는 언어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모국어를 습득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정옥분, 2004). 따라서 이 시기에 양육자의 지속적인 언어적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11~12개월이 되면 영아는 ‘엄마’, ‘맘마’ 등의 한 단어로 첫말을 시작한다(김익균 외, 2003). 이렇듯 생후 1년이 되면 영아는 유의미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이때 반복하여 말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1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10개 정도의 어휘를 습득하게 되고 발달이 빠른 영아는 두 낱말로 이루어진 어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곽금주 외, 2005). 18개월경부터 영아가 사용하는 어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처럼 언어획득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24개월 전후를 언어발달의 ‘폭발적 팽창 시기’라고 한다(장영희, 2000). 이 시기부터 영아는 성인의 억양과 행동을 흉내 내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 행동보다는 언어를 사용하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의 언어적 발달 특성을 보인다(이명순, 2014). 김지연(2005)에 의하면 이때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어휘를 습득하는데 있어 교사의 피드백과 질문하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은진, 박혜경(2007)은 어머니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양육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의 언어발달은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생리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영아는 주변과의 소통을 위해 언어를 습득하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곽금주, 김연수, 2014). 또한 인지발달은 물론이고,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후일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할 만큼 영아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이기도 하다(정혜진, 2011).

이처럼 영아의 언어발달은 만 0세 영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울음, 옹알이, 몸짓, 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생 후 1년이 되면 첫 말을 시작하고, 그 후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4) 정서발달

영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화된 정서를 나타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서발달은 자신과 주변 세계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영아들의 반응과 느낌, 다양한 감정 등을 구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김정미, 2002). 또한 영아의 정서발달은 언어나 신체발달과 같이 발달적 순서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양옥승 외, 2015).

출생 후부터 이루어지는 영아의 단계별 정서발달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옥분, 2004; 이순형 외 2010). 먼저 신생아의 경우 흥분의 상태로 2개월이 지나야 유쾌와 불쾌의 정서로 분화되고, 영아가 쾌감을 느낄 때는 긴장을 풀고 잘 웃으며 환경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지만 불쾌감을 느낄 때에는 근육에 긴장을 일으키고 울기 시작한다. 그 다음 5~6개월에 불쾌의 정서에서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등의 정서가 나타나며, 1세가 되면 유쾌의 정서에서 애정의 정서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불쾌에서 질투, 유쾌에서 기쁨, 행복, 만족 등의 정서가 나타난다.

아울러 영아들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더불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8개월에서 10개월이 되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feinman, 1992).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기질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더욱 분명해져서 성장하는 동안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성연, 2005). 이러한 기질적 특징은 영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영아는 조용하고 대부분 기분이 좋지만 어떤 영아는 많이 울고 자주 보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기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만큼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전홍주, 최유경, 최항준(2013)은 영아의 개별적 특성인 기질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자의 적합한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생후 첫 1년 동안에는 정서조절이 주로 성인에게 의존되어 있지만 생후 2년이 되면 새로운 방식의 정서조절 능력이 나타나, 18~24개월경에는 '싫다', '무섭다' 등의 말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김익균 외, 2003). 따라서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성인에게 의존되는 영아의 정서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아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5) 사회성 발달

영아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은 애착이다. 이는 0세 영아가 영아기 동안 형성하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이며, 양육자와 영아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이명순 외, 2014). Bowlby(1969)는 영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을 때 가까운 양육자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생존을 위한 반응이 애착기제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착은 6~7개월경에 양육자와 형성하게 되는데 24개월까지를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유효순 외, 2013).

애착의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옥분, 2004; 이순형 외, 2010). 처음 2~3개월에는 낯선 사람과 낯익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3~6개월경에는 양육자와 타인을 구분하고, 6~8개월에는 양육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달시키게 된다. 이 때 영아는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영아가 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증거이다. 여기에서 낯가림이란, 낯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울며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첫돌 전후로 계속 증가하다 서서히 감소한다. 분리불안 또한 돌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20~24개월경에 사라지는데 이는 부모나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 분리될 때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리불안은 어린이집의 초기 적응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김윤숙, 조희숙(2011)은 영아와 부모의 분리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으로 인해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조미숙(2015)은 영아의 분리불안으로 인해 교사에게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에서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하기도 하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때 안정적으로 형성된 애착은 영아들이 주변의 또래나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친다(김정미, 2002).

또한 또래와의 관계는 서로 탐색하는 정도로 단순하다. 생후 2개월에 아기는 다른 영아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며, 3~4개월경에는 다른 아기에게 손을 내밀거나 만지려한다(김익균 외, 2003). 그 후 영아들은 다른 영아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방관자적 행동이 나타나고, 14~18개월에는 병행놀이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나란히 앉아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할 뿐 함께 상호작용하는 등의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윤애희, 2004). 18개월이 지나서야 서로 모방하며 따라다니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영아기의 사회성은 애착관계로부터 시작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율성, 자기조절,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로 특정 지을 수 있다(김호인, 2010). 또한 애착관계 형성의 과정에서 낯가림과 분리불안의 특성이 나타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방관자적 행동과 병행놀이가 이루어진다.

2. 영아반 교사

1) 영아교사의 역할

만 0세 영아들은 월령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육의 특수성이 강조되며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이러한 보육의 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영아발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이소연, 2015). 특히 이 시기의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들은 다른 연령의 교사들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하루 종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를 지도하면서 긴장감 속에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쉴 틈 없이 이와 같은 힘든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함께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사들은 영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일과를 함께 보내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어린이집의 주요일과를 보면, 등원, 수유 및 식사 또는 급 간식, 수면이나 휴식, 배변 또는 기저귀 같이, 실내자유놀이, 대 소집단활동, 실외놀이, 귀가 등을 들 수 있다(노희연, 2014). 이러한 어린이집의 만 0세 영아의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영희, 2000; 표준보육과정, 2013).

첫째, 교사는 부모와 함께 등원하는 영아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영아수첩이나 부모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영아의 건강상태 및 수유와 기저귀 같이

등의 시간을 체크 하여 보육활동 시 참고한다.

둘째,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영아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욕구를 고려하여 활동을 제안하거나 반응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유선택 활동 시간 중에도 영아의 생리적인 요구와 리듬을 파악하여 배려한다.

셋째, 간식 및 점심시간에는 영아의 월령에 따라 수유 및 이유식, 일반식을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부모가 기록한 사항이나 대화 시 내용을 참고하여 음식의 양과 수유의 시간 등을 조절한다.

넷째, 기저귀 갈이를 할 때에 교사는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섯째, 낮잠시간 동안 교사는 영아가 신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조용한 분위기에서 영아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낮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실외놀이 및 산책활동을 할 때 교사는 영아의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아직 걷지 못하는 영아의 경우에는 유모차를 이용하여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영아는 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귀가지도를 할 때 교사는 학부모와 영아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부모와의 만남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아수첩을 통해 오늘의 일과나 건강상태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등원부터 귀가 시 까지 어린이집에서 하루일과를 보내는 영아들에게 교사의 역할은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하루일과 속에서 교사는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양육자나 보호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영아에게 적합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영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놀이를 계획하며, 상호작용하는 등의 교육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협력하며, 동시에 여러 역할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아교사는 양육자, 교육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교사는 영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등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하루일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어린이집에서의 식사, 낮잠, 배변 및 기저귀 갈이의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의 지도는 영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지원해 주는 동시에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표준보육과정의 0-1세 기본생활영역의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영아의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 때 교사의 적절한 지원 또한 얼마나 중요한 지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진화(2001)는 영아교사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가정과 부모를 떠나 어린이집의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되는 영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교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아의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수진(2002)은 영아 보육교사의 역할로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 주기, 적절한 교육내용과 효율적인 교수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각 상황에 적절한 의사 결정하기, 새롭고 다양한 학습 환경 제공하기, 영아의 발달상황 평가하기를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조성연(2006) 역시 영아교사의 역할로서 영아와 애착형성하기, 영아발달을 돕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상호작용하기, 개별적 특성 고려하기, 물리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경험의 기회주기,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영아교사의 역할을 보호자 혹은 양육자로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0세 영아의 경우 무엇보다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애착의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기질, 개별 영아의 월령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제 2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영아교사는 보호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영아교사는 영아기 발달과 영아기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여 매일 매일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영아의 요구 및 발달이 보육교사가 의도한 교육활동과 서로 잘 어울려 지도록 보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성은숙, 2007). 이석무(1994)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매일의 프로그램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지식의 제공자, 전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의 중재자이며 학습의 촉진자로서 영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적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영아에게 적절한 활동과 자료, 시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절차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황해익(2015)은 영아교사는 양육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경험을 주기 때문에 교육적인 자극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영아가 발달이 지체되거나 결손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경립(2005) 역시 영아교사의 역할을 대리 부모로서의 역할,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환경조성자로서의 역할, 평가자로서의 역할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윤정(2010) 또한 영아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경험을 마련해 주고 각 개인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는 보호자의 역할과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으며 영아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영아교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함께 보다 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질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므로 양

적 팽창보다는 질적 발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육프로그램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과 재교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김영모, 2000). 김선희(2008) 역시 영아 교사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보호자나 양육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영유아 발달을 촉진 시키고 영아를 지도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경화(2011)는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보호자 역할만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교수자, 상담자, 연구자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교사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상담자의 역할은 부모와의 협력과 관계형성을 위해 요구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성은숙(2007)은 영아보육에 있어 부모와의 협조와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영아보육의 보조자 또는 협조자로서의 부모에게 보육의 목적과 보육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알리는 것은 보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보다 더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영아교사의 역할은 보호자, 양육자, 교육자,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연구자, 상담자 등의 전문가로서의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고 변화함에 따라 영아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또한 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영아교사의 근무환경

일반적으로 영아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근무환경은 근무시간, 교사와 아동의 비율, 개인 시간 확보 등이 있다. 또한 근무

환경은 보수 이외의 근무조건, 근무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총칭하는 것으로(신희연, 2005),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2016)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아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보수를 포함한 것으로 근무시간, 교사와 아동의 비율, 후생복지(급여,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휴가, 각종 수당, 근로계약, 경력관계), 보수교육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형근혜, 2006). 또한 열악한 영아교사의 근무환경은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인 기력 소진으로 이어지며(탁정화, 황해익, 2012), 이러한 영향은 곧 영아에게 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교사의 환경적 처우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아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내용을 근무시간, 아동의 비율, 보수기준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2014)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금요일은 12시간(07:30~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및 시설의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공휴일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운영자는 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손주리(2014)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9.88시간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초과근무 횟수는 평균 주2회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서의석(2006) 역시 보육교사의 정규근무시간과 기타 근무내역을 합하면 추산되는 근무시간이 약 11시간이었고, 최대 14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음을 결과로 보여주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과도함을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서근복(2009)은 보육교사들의 낮은 보수와 장시간의 근무시간이 업무수행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보육교사들이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 교사 7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취하는 휴식시간은 17분으로 조사되었는데(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이는 교사들이 휴식 없이 장시간의 종일보육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직무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2016)는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 반 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만 0세 1:3, 만 1세 1:5, 만 2세 1:7로 준수해야 함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순(2014)의 근무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91.8%가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맡고 있는 연령의 아동비율 적합성에 대해 살펴본 서의석(2006)의 연구결과, 만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동비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아동비율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교사 한명이 감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교사들의 아동비율에 대한 만족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여건 및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는데 여기서 호봉이란, 근무경력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 하는 기준을 말하며,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또한 담당연령과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치우개선비, 누리과정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혜(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보육교사들이 현저하게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린이집 교사는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인식이 박혀있음을 지적하며,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체하는 보수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상희(2014)는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수에 관련한 부분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조사한 결과 처우의 개선과 함께 교육 이외의 잡무를 줄이고 적절한 보수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여인우(2013), 신수진(2015)의 연구에서는 영아교사들이 열악한 처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아반 교사와의 처우개선비등의 수당과 급여의 차이로 인해 불만족을 느끼며 이는 영아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이렇듯 장시간 근무조건이나 낮은 급여,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으로 인한 근무환경은 보육교사의 근무안정성을 저해하고 유능한 보육인력의 신규진입을 억제 및 방해하며,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김현미, 2005).

이와 같이 영아교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선과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환경에 대한 원칙 및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는 근무환경에 대한 상황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행 연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이 점점 하향화 되고 그에 따른 영아교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영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2010)는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유아중심의 직전 교육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영아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과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교사 자신의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주화, 이종희(1998) 역시 영아들이 놀잇감을 빼앗는 행동, 친구를 밀거나 때리는 행동, 소리를 지르는 행동,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떼를 쓰는 행동, 침을 뱉거나 무는 행동 등의 영아가 발달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만 1세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에서 성은영, 최승연(2015)은 신입영아교사들의 경우 영아의 언어표현의 한계, 영아의 월령에 따른 급격한 행동 변화와 편차로 인해 영아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조미숙(2015)은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연구에서 영아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어려움은 영아의 분리불안과 안전사고의 두려움, 자족기술이 부족한 영아를 개별적으로 돕기, 개별 낮잠 요구에 따른 낮잠재우기로 나타났다. 또한 최지현(2012)은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의 연구에서 영아의 실질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영아의 기본적 욕구 지원의 어려움, 규칙, 허용 경계 짓기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양지영(2007)의 연구에서도 영아반 교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으로 영아들의 보살핌에서 오는 노동이라는 인식과 영아들에 대한 정보의 무지, 교사로

서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회의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윤숙, 조희숙(2011)은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연구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어려움으로 협조부족, 자기 아이만 바라보기, 불안감과 불신감, 초임교사라는 꼬리표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박소윤, 서현아(2015) 또한 어린이집 초기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교사의 어려움으로 학부모의 신뢰부족과 영아적응에 대한 이해부족,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부족을 손꼽았다.

여인우(2013)는 영아교사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 교사들이 영아를 돌보는데 있어 안전사고의 두려움과 그로인한 학부모의 민감한 반응,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시선과 왜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뉴스에서 보여 지는 영아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의심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2003)은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 낮은 보수와 교사의 전문성을 인식하지 않는 학부모들로 인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혀 영아교사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최희양(2001) 역시 영아보육교사들은 단순히 영아를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만 하는 ‘보모’ 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이완희(2004), 조혜진(2007)은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의 연구에서 돌봄의 역할이 강조되는 특성 때문에 유아교사에 비하여 교사효능감이 낮고, 영아교사가 전문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영아교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낮은 인식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저하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김수진(2002)은 영아보육의 질적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영아의 보육환경이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면서 영아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희연(2005) 또한 장시간 근무와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가 영아교사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양보경(2007)은 영아반 담당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 전체 정원이 많고 경력이 높을수록, 월급이 적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아반 교사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그들은 어떠한 요구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진희, 임진형(2004)은 영아전담 보육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월령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요구하였고, 대학교육에서도 영아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탁정화, 황해익(2012) 역시 영아교사가 필요한 지원방안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및 개발·보급이 선호되었으며 경력교사의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윤영, 배지희, 김은혜(2013)는 영아반 교사들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교사의 경험이 반영된 영아반 교사의 배치를 원하고 있었으며 일손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나 인턴교사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영아교사들 간의 교류 활성화와 사회적으로 영아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순환, 전셋별(2010)은 경력에 따른 영아교사들의 현직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초임교사들은 영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교육계획안 작성법, 인성교육, 보살핌의 의미와 영아반 교사역할에 대한 교육을 바라고 있었으며, 경력교사들은 보살핌의 교육적 활용, 문제상황과 특수교육, 부모상담기술과 부모교육, 관찰기록법, 중간관리자인 멘토로서의 역량 신장

등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경화(2013)는 영아교사의 삶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에서 영아교사로서의 바람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영아 대 교사 비율의 조정, 근무조건향상,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아교사는 역할 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아교사로서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완희, 박찬옥(2005)은 2세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의 연구에서 미혼 초임교사들은 혼돈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며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엄마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수진(2015) 역시 교사를 좋아하고 따르는 영아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며 영아가 주는 긍정적 기운과 졸업 후에도 교사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영아들을 볼 때,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교사가 기여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보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이 긍정적 행동으로 변화했을 때 보육활동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최지현(2012)은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의 연구에서 그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아들의 성장과 변화, 자신만의 노하우 축적과 이를 통해 융통성 있는 일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로서 성장한 자신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희(2013)는 만 1세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영아반 교사로서 살아가는 힘으로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사의 지도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영아들의 모습과 영아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교사로 바뀌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교사와 힘들고 벅찬 일들을 나누며 한바탕 이끌어 나가고 서로 도움을 줄 때, 학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서경화(2013)는 영아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교사인식의 연구결과, 영아교사들은 보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아들의 성장이나 부모와의 관계, 혹은 동료교사와 원장과의 유대관계에서 교사로서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대체교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육교사의 휴가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만족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에 대한 연구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요구, 보람과 만족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영아교사들은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부모와의 관계,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영아를 보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학부모와 동료교사로 인해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곧 보육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할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만 1세~ 만 2세 담당 영아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만 0세를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한 경험이 있는 현직 어린이집 교사로 그 중 연구 참여 의지를 밝힌 서울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9명, 가정어린이집 교사 1명으로 총 10명의 교사를 선정하였다.

질적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갔느냐 하는 정도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자가 근무했던 곳의 동료교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으며, 연구자와 이미 라포 형성이 되어있는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도움을 청하였다. 또한 지인과 주변의 교사와 원장에게 추천을 받은 후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영아교사의 많은 업무로 인해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로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몇 차례의 연락과 설득을 통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영아반 교사로서 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인 보육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연구자가 4년 동안 영아반 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0세, 1세, 2세 영아의 연령에 따라 어려움의 요인이 다름을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다양한 연령의 영아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이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10명의 연구 참여자에게는 모두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심층면담 진행 시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는 것과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

연구 참여자	연령	경력	만 0세반 담임경력	학력	자격취득원	결혼 여부
A 교사	24세	2년	1년	전문대졸	2년제 대학	미혼
B 교사	45세	2년	2년	대학원 재학	4년제 대학	기혼
C 교사	32세	5년	2년	전문대졸	2년제 대학	기혼
D 교사	29세	7년	2년	전문대졸	2년제 대학	미혼
E 교사	28세	7년	1년	대졸	3년제 대학	미혼
F 교사	35세	8년	4년	대졸	2년제 대학	미혼
G 교사	35세	3년	1년	대졸	사이버 대학	미혼
H 교사	33세	2년	1년	전문대졸	사이버 대학	기혼
I 교사	26세	2년	1년	전문대졸	보육교사교육원	미혼
J 교사	44세	6년	4년	대졸	보육교사교육원	기혼

1) A 교사

A교사는 서울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경력은 2년차이다. 현재 만 0세 담임으로 만 1세 담임을 했던 경력이 있으나, 처음 만 0세를 맡았을 때에는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양육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현재는 사이버 대학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 중이며,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만 0세 영아반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노고가 알려지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2) B 교사

B 교사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0세 영아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보육교사 경력은 2년차로 모두 만 0세 영아의 담임을 하였다. 또한 기혼으로 양육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아교사로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특히 교사의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도 하였다. 지금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보다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올해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3) C 교사

C 교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만 1세 담임으로 5년차 보육교사이다. 영아반 담임경력은 4년으로 그중 만 0세를 담당할 경력은 2년이다. C 교사는 만 0세를 담당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사명감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반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서 영아교사로서 보람도 느끼며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4) D 교사

D 교사는 7년차 교사로 현재 영아전담 어린이집에서 만 0세 영아반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영아반 교사로서의 경력은 6년이다. 민간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만 0세 영아반은 이곳에서 처음 담

당하였다고 한다. 처음 만 0세 영아와 생활하면서 영아에 대해 알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서 후에는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5) E 교사

E 교사는 7년차 교사로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주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영아반 담임경력은 5년이다. 만 0세 영아반은 처음 맡아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영아반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자의로 0세 반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영아들과의 생활에 비교적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유아 교사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에 비해 교사로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6) F 교사

F 교사는 현재 만 2세 영아를 담당하고 있으며, 8년차 교사로서 영아전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F 교사는 졸업 후 편입을 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사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다시 보육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만 0세 영아반 경력은 4년으로, 영아반 교사로서 7년 동안 다양한 연령의 영아를 맡아 지도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만 0세 영아반 교사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0세 영아반 교사가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우 힘든 반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0세반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표현해 주기도 하였다.

7) G 교사

G 교사는 현재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보육교사 경력은 3년차이며, 모두 영아반을 담당하였다. G 교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좋아해서 뒤 늦게 공부를 시작해 보육교사가 되었다고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만 1세를 담당하고 올해 처음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보다 더 어린 연령의 영아들로 인해 겁이 나고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투담임으로 선임교사 역할을 하며 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8) H 교사

H 교사는 서울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에서 현재 만 1세 영아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교사경력은 2년으로 모두 영아반이며, 만 0세 영아반 담임으로 1년 근무한 경험이 있다. 또한 기혼자로 양육경험이 있으며,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H 교사는 양육경험이 있지만 만 0세 영아반을 맡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3명의 영아를 돌본다는 것에 대해 겁이 났다고 이야기 하면서 투담임이 아닌 혼자 만 0세를 지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9) I 교사

I 교사는 2년차 보육교사로 모두 영아반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만 0세 영아반 담임교사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I 교사는 아이들이 좋아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며,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 후 만 1세 영아반 담임을 하게 되었고 현재 만 0세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특히 양육경험이 없어 파트너 교사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 연령의 미혼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학부모의 시선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0) J 교사

J 교사는 6년차 보육교사로 현재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영아반 담임 경력은 4년으로 모두 만 0세 영아반에서 근무 하였다. J 교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보육교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대학교를 다니며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J 교사는 만 0세 영아반을 맡게 된 이유로 기혼자이며 양육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만 0세 영아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두 담임으로 선임교사 역할을 하며 자신보다 경력이 더 적은 교사와 짝을 이루어 반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이다.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 연구자와 이미 라포 형성이 되어있는 교사 2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에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집단면담의 형태로, 연구자의 예상 질문 목록을 토대로 반구조화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연구자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의 내용을 세부적이며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전면담을 통해 질문의 내용 및 방법,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수정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함께 그들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총 10명의 교사와 각 2회씩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아들의 낮잠시간이나 퇴근 이후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연구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분-10분 정도의 예비시간과 50분-60분 정도의 면담시간을 가졌다.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은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전화면담을 실시하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저널로 작성하여 자료를 기록하였다.

3. 자료수집

1) 심층면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된다(양지영, 2007). 또한 심층면담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방식을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 방식이다(김영천, 2006).

1차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과 영아반 교사의 삶에 대한 이

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며, 그에 따른 어려움에 관한 질문들로 진행하였고, 2차면담에서는 1차면담시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였고, 어려움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대와 요구는 무엇이며, 영아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목록을 토대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이론에 따라 작성한 질문목록을 수정한 것으로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담 질문목록

구분	내용
개인적 특성	·보육교사를 하게 된 동기 -어떤 계기로 보육교사가 되었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 보육교사가 되었나요? -교사가 되기 전 가졌던 기대가 있나요?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삶	-선생님의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영아반을 맡게 된 계기가 있나요? (만 0세반) -만 0세 영아반 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영아, 학부모,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및 보육 외 업무 등) -만 0세 영아반 교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나요? (사회적 인식, 학부모, 동료교사 등)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갖는 기대와 요구	-교사로서(개인적) 갖는 기대감(바람)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책적으로 기대(바람) 및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재교육, 프로그램 향상 등)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보람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교사 개인 및 영아, 학부모,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 연구자의 저널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 시 분위기와 상황, 연구자의 느낌, 면담 시 어려움과 문제점 등 자료화 되지 않은 면담의 내용들을 저널에 기록하였다. 연구자의 저널은 주 1회 정도로 분량에 구애 받지 않고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총 15여 편의 저널이 수집되었다. 또한 연구자도 영아전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특히 만0세 영아반을 담당하여 지도해 보았던 교사이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저널 쓰기는 연구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심층면담과 연구자의 저널이다. 자료의 분석은 개별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되도록 바로 전사하여 면담의 느낌과 상황적 맥락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용분석 중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 혹은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수집된 자료들은 분석적 귀납방법을 통하여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찾아내는 개방적 코딩 방법을 사용하였고, 또한 반복적 읽기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들을 구분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용어로 명칭을 부여하며, 자료를 범주화하여 반복적인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심층코딩의 과정(김영천, 2006)을 거쳤다.

자료의 분석 도중에 떠오르는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은 기록하거나 참고할 내용에 표시하여 전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전사내용과

연구자의 저널에 기록한 내용을 읽고 해석하며,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개별적 특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갖는 기대와 요구’,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보람’ 으로 범주영역에 따라 하위 범주를 분류하였다.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범주 내용들은 영아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과 일상생활 지도의 어려움, 교육적 회의감, 학부모와의 관계,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이며, 만 0세 영아의 특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범주들로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기대와 요구하는 바의 범주 내용들은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프로그램과 지침서의 개발,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하위범주를 나눌 수 있었으며, 영아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으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과 보람, 팀티칭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보람으로 유목화 된 큰 범주에 따라 몇 가지의 하위 범주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질문지의 적절성을 확인받는 과정과 연구자가 도출한 분석 및 결론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내부검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질적 연구를 경험한 유아교육 전문가와 검토 받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내용을 더욱 객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애착관계 형성하기,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들과 소통하기, 영아의 일상생활 및 기본적 욕구 지원하기,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주위의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 영아반 교사로서 느끼는 교육적 회의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애착관계 형성하기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와 만나는 순간부터 영아들과의 안정된 애착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애착은 영아기 동안 0세아가 형성하는 결정적인 사회적 관계로(김윤자, 2005), 교사들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 0세 영아들이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기 초 적응기간 동안 영아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애착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만 0세 영아반의 담임을 처음 맡은 교사의 경우에는 영아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0세가 처음이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죠. 엄마와의 애착이 있을 거 아니 예요. 근데 저랑 애착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부터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서로 교감이 되는 건데,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아이에게 정을 붙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죠.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민감하게 알아야겠구나.. 패턴이 있잖아요? 아이마다 성향이 있고, 많이 관찰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마다 적용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E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처음에 제가 다가갔을 때 잘 반기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아예 거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를 거부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중략) 개월 수에 따라서 낮가림을 시작하고 그런 게 돌 전후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이들이 왜 낮설어 하고 왜 우는 건지...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할 법도 한데.., 제가 낮설긴 하겠지만 그런 낮가림 자체가 이렇게 심한지는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돌 전후로 원래 아이들의 특성이 그렇구나.. 그런 거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런 게 많아요.

(I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영아들마다의 특성이 다르고 어린이집에 오기 전까지의 생활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아와의 애착 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개별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영아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빠른 시일 안에 영아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관찰을 통해 영아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애착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처음 경험하는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만 0세 영아와 신뢰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의 영아들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교사들은 영아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은 그 사람과 애착을 맺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을 만한 존재인지.. 적응기간 내내 이 아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주어야 되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언제쯤 애착을 나하고 맺어서 나한테 안겨서만 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오고 그럴까? 그랬는데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만 1세 반보다 애착기간은 저희가 더 길어요. 그 신뢰감을 맺는 기간이 더 긴 거 같아요. 0세는 애착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B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1)

만 1세, 2세 반은 0세 보다 적응기간이 빠르는데, 0세는 더 많이 예민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안아주고 상호작용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말았던 만 1세, 2세 반 애기들에 비해서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D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0세는 다른 연령보다 적응기간이 더 길기도 하고 아무래도 애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적응기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욕구를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욕구표출인데 우리는 그게 또 스트레스인거야. 계속 하루 종일,, 1학기 내내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C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영아들이 교사를 믿고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교사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아들을 달래고 어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다고 하였다. 때때로 교사들은 영아들의 울음소리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처럼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학기 초 적응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영아들과의 애착형성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영아와의 애착을 맺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교사에게서 떨어질 줄 모르는 영아로 인해 다른 영아들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영아를 강제로 떼어내고 다른 영아들을 돌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떨어지지 않으려는 영아에 대한 돌봄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교사들은 혼란스러워 하였다.

00가 애착을 저한테만 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아이를 보고 있으면 00가 다가와서 저한테 안기고 안아달라고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런데 또 다른 선생님한테는 안가고 저한테만 오니까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00가 저한테만 애착을 해서 이 아이를 떼어놔야 하는지.. 다른 선생님한테도 애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A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1)

연구자도 위의 사례에서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교사에게서 떨어지기 힘들어 하는 영아와 함께 다른 영아들을 함께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교사가 잠깐 자리를 비우기만 해도 불안해서 울음을 터트리는 영아로 인해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몇 달 후 영아는 적응을 하였고 안정적으로 교사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다. 보육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경력 교사의 조언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연구자 저널, 2015. 6. 2)

선생님 혼자서 여러 아이를 보잖아요. 처음엔 아이가 선생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너무 어리니까... 선생님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0세는.. 그게 어려웠어요. 선생님을 나눠서 가져야 한다는 것, 애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략) 처음 적응기간 때는 같은 반이어도 한 아이를 안아주면 다른 아이가 샘내서 밀어내고 하는 그런 게 힘들었어요.

(F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7. 31)

특히 교사들은 혼자서 여러 명의 영아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안정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개별 영아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애착을 형성해야 하지만 다수의 영아를 보육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사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영아들이 교사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들과 소통하기

만 0세 영아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울음이나 표정, 몸짓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영아들의 의사표현에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왜냐하면 영아들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은 각각의 영아들마다 다르게 표현될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연계하여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아는 일단 너무 어려서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1세만 되

도 2학기 때는 말문이 트여서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하는데 0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말을 못하니까 거의 끝날 때 까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무조건 기분이 나쁘면 울음으로 표현하고, 떼를 쓰면 왜 기분 나쁘지 그거를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파서 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F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7. 31)

장염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전날에 어머니가 밥을 안 먹이셨대요. 그런데 딱 우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배가 아파서 우는 건지 근데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우니까.. 안아주면 조금 그치고 그럼 애는 안아달라고 우는 건지 배가 아파서 우는 건지.. (중략) 1세는 일단 말이 통했었거든요. 그런데 0세 아이들은 뭘 원하고 어떤 거를 제가 해줘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서.. 애가 우는데.. 아픈가? 그런 때는 제가 욕구를 다 못 채워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죠.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영아의 경우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영아의 기분이나 상태,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할 수 없어 힘들어 하였고 한편으로는 영아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요즘은 한 자녀가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서로 나누는 게 안 되니까, 아직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손이나 간다거나 발로 밀치거나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 해줘야 하는데 안 된다는 표현 자체를 모르니까, 아직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호하게 “안 돼.” 하면 순간적으로 아이가 당황하

긴 하지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민감한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더 울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과 맞춰 나가야 할지.. 아직은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큰 아이들은 대화가 되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을 아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의사를 전하면 돌아오는 게 없고 계속 하지 말라는 행동들만 하니까 뭔가 제 의사가 전달이 잘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한 아이들의 마음.. 그 심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상호작용이 잘 오가면 좋은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씩 웃어버리고 마니까 애가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건가? 근데 막상 “안 돼” 하고 강하게 이야기 했을 때는 울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못하겠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I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19)

또한 교사들은 영아들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이 반복될 경우 교사는 자신이 전달한 의사를 영아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 받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하소연하였다. 하지만 막상 교사의 단호한 어투에는 울음을 터트리며 영아들을 지켜보면서만 0세 영아의 문제행동 수정의 과정에서 오는 걱정과 고민에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우는 건 당연한 건데 본능적인 거고 애기들이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를 재가 뭔가 불편한가 보네, 뭐 불편한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아이들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해주면 되는데 애들이 계속 울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나도 예민해지고..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럴 때 힘든 것 같아요.

(D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면담을 진행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이 영아들을 보육하며 경험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자 또한 영아들이 떼를 쓰며 울음을 터트리는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아반 교사들의 고민과 심리적인 문제를 함께 이야기 나눌 곳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아반 교사들을 위한 정서적인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자 저널, 2015. 5. 26)

이처럼 울거나 떼를 쓰며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들의 특성은 교사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아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발달적 특성에 대해 머리로 인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그런 영아들의 의사표현 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예민해지는 교사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내심과 기다림의 과정에서 가중되는 정서적 피로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3) 영아의 일상생활 및 기본적 욕구 지원하기

영아들은 식사, 배변, 잠자기 등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최지현, 2012). 따라서 교사들은 영아들이 생애 초기에 필요로 하는 생리적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여 정서적인 지원과 함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한

다. 즉,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하루일과를 보내며 식사시간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하고 낮잠시간에 편안함을 느끼며 배변 및 기저귀 갈이를 통해 교사에게 보살핌을 받는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는 영아반의 하루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이러한 영아들의 일상생활 지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식사지도, 배변 및 기저귀 갈이, 낮잠지도의 사례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식사지도와 관련된 어려움

영아기는 성인식으로 서서히 옮겨 가면서 식습관이 형성·고정화되고, 영양에 대한 기초 형성이 중요해지며, 영양에 대한 지식이 더욱 확대되고 영양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주영은, 서영화, 이숙자, 2012). 특히 이제 막 고형식을 시작하고 점점 일반식으로 전이하는 영아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고 먹는다는 것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노희연, 2014). 때문에 영아기의 바람직한 식습관지도는 필수적이며 특히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경우 영아의 개별 월령에 따라 수유 및 이유식을 거쳐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식습관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기초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만 0세 영아의 경우 대부분 수저를 사용하지 못하며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수의 영아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된다고 하였다.

밥 먹을 때 지금 아이들은 “앉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돌아다니면서 먹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또 3명이다 보니까 한 명 먹여주면 앉아있던 한 명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자기한테 관심을 안 보이면 일어나 버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줘야 하는데 3명이다 보니까 분산적으로 줘야하고, 식사지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점심식사 지도할 때 0세 아이들은 숟가락질을 못하고 다 먹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3명을 먹이면 1:3이잖아요.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내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먹이면 어떤 아이들은 못 기다려요. 손으로 주워 먹는 애들도 있고, 0세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식습관 지도 때문에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F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7. 31)

초반에는 우유 먹이는 게.. 왜냐면 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4명의 아이들까지 우유를 먹는 건 괜찮아요. 어떻게든 교사 한명이 두 개씩 잡고 먹일 수가 있는데 5명의 아이들이 우유를 먹게 되면 어느 하나가 울거나 보채거나 하면 그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좀 두고서는 다른 아이를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밥을 먹는 친구가 2명이고 이유식을 먹는 친구가 4명인데 일반식 먹는 친구들은 그래도 숟가락, 포크를 조금씩 사용하는 친구도 있는데 거의 다 교사들이 먹여줘야 하니까 아무래도 식사시간이 제일 힘들죠. 이제 숟가락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집에서 떠먹여 주는 게 익숙한 친구들은 숟가락 자체를 안 들려고 하니까 그런 기초 식습관이 처음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위의 사례와 같이 영아는 식사 시 교사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유 및 이유식, 일반식 등 개인차가 심한 다수의 영아를 1:1로 지도 할 수 없어서

매우 힘들어 하였다. 또한 그로인해 기다려야 하는 영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고 수저 사용이 미숙하거나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는 영아의 기초 식습관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식사지도가 어려웠던 건 호불호가 많아가지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또 안 먹고 어느 날은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아기여서 모든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B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5)

식사시간에 나는 먹여야 되는데 아이는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골고루 다 먹여야 하는데.. 이유식도 야채나 시금치 이유식 나올 때는 안 먹고 뺏는 경우도 있고 쇠고기 이유식 나올 때는 먹기도 하고, 그럴 때가 힘들죠.

(C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양껏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고 뺏어 낸다 거나.. 이제 저희 16개월인 친구가 있는데 그 애기가 점점 맛을 알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싫어하는데 억지로 붙잡아두고 먹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중에 먹겠거니 하고 나뉘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유아면 알려주면서 할 텐데 너무 애긴데 이거를 강요를 해야 되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많이 그랬었어요. 고민스럽더라고요. 밥 먹이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 같아요. 힘들고..

(E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또한 교사들은 싫어하는 음식을 뺏거나 거부하는 영아들에게 어떻게 편식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영아들의 경우 어려서부터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길러주어야 하지만 교사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연령의 영아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음식을 처음부터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사들은 영아들의 편식에 대해 지금부터 바로 잡아주어야 할지 아니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특히 육아경험이 없는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들의 수유 및 이유식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들은 분유의 양, 온도, 수유 시간 등을 알지 못해 경력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들을 채워서 온 아이들도 있고 안 채워서 온 아이들도 있는데 이유식에 관해서라 던지 아니면 분유를 얼마 만큼 먹여야 되고 분유의 온도는 어때야 되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다 저에게는 필요한 건데.. 어느 정도 미적지근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온도라 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려웠어요.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I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19)

이제 애기들이 보통 어리면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먹이잖아요. 처음엔 그러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 0세 반을 맡았을 때 집에서 마지막 분유를 먹은 시간을 적어서 와야 한다는 걸 들었을 때 “아 맞다, 애기들은 자주 먹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D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만 0세 영아는 일반식을 먹는 다른 연령의 영유아들과 달리 수유 및 초기, 중기, 후기 이유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일반식을 먹게 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단계를 인지하지 못해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을 위와 같이 이

야기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에게는 다수의 영아들을 통제하며 식사지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자신들의 끼니조차 마음 편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영아들의 식습관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2) 배변 및 기저귀 갈이와 관련된 어려움

기저귀 갈이는 만 0세 영아의 매일 일상생활 중에 하나이므로 교사는 영아와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로 인식해야 하며, 영아가 이 시간을 즐겁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김정미, 2002). 이렇듯 영아에게 있어 기저귀 갈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교사는 영아를 배려하여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육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영아반 교사의 경우 기저귀 갈이에 미숙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기저귀를 갈아 본 경험이 없어 난처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처음 교사로서 기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다고 한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처음 기저귀를 갈아봤어요. 결혼을 한 게 아니니까 처음에 기저귀를 갈 때는 조금 내가 생각하던 그런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앞, 뒤도 모르잖아요. 짝꿍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텀이 1~2시간에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몰라서 힘들었던 거 같아요.

(F교사 전화면담, 2015. 7. 31)

처음엔 아이들이 누워있는 걸 힘들어 해요. 한 명은 누워 있으면 막 울어가

지고 아이가 울면 당황하니까 버벅 거려서 응가 묻은 기저귀가 옆으로 빠진 다던지 손으로 엉덩이를 잡으려고 하고 또 한명은 응가를 하면은 닦는 걸 싫어해가지고 소리를 악 지르면서 우는 경우도 있고 우니까 또 제가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묻지 않을 정도로 닦아준 후에 안아 주기도하고 기저귀갈이를 하면서 소리를 잘 내줘요. 달래준 다음에 더 오버스럽게 기저귀를 풀 때도 리액션을 크게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A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1)

이와 같이 처음 기저귀 갈이를 해보는 영아반 교사들은 이전의 실습 경험이 없어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았다고 한다. 기저귀의 앞, 뒤를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교체시기를 숙지하는 것 또한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기저귀 갈이는 영아에게 있어서 교사에게 보살핌을 받는 중요한 시간임과 동시에 어려움의 과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저귀 갈이를 할 때마다 영아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당황하기도 하였고 교사의 미숙한 기저귀 갈이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하는 영아들로 인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영아반 교사들은 기저귀갈이에 익숙해 질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다수의 영아를 보육하는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영아의 배변시간을 체크하거나 교체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각 영아들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발진이 생길 경우 모두 다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아이들마다 배변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이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냄새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저귀 갈이를 못하면 발진이 날 수도 있고 전 그러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제 과실인 것 같

아서..

(H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7)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도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발진 같은 게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쓰지만 가정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신경을 많이 못써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 같아요.

(I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19)

이와 같이 기저귀 갈이를 할 때마다 발진이 생기게 될까 하는 걱정이 따랐고 수시로 기저귀를 확인하고 발진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사들은 기저귀의 교체시기 등을 숙지하기 위해 동료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영아들을 세심히 관찰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기저귀 갈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교사들도 많았다. 특히 손목이나 허리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서 직업병의 발현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영아들이 기저귀 갈이를 해야 되니까 배변하고 나서 계속 씻겨 줘야 되잖아요. 씻겨주고 옷을 자주 갈아입혀줘야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죠.

(B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1)

기저귀만 가는데도 정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큰 반처럼 누웠다 같고 딱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 봐라, 앞에 보자.” 왜냐하면 계속 몸을 비틀고 하니까, 대변을 보게 되면 물로 닦아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기저귀 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리고.. (중략) 1세만 되도 자기 몸을 가눌 수 있으니까 씻기거나 할 때도 잡고 서라고 하면서, “기다려줘” 라고 하면서 하는데 0세는 자기 몸을 못 가누니까 한쪽 팔로는 그 아이를 지지해 줘야 되고 또 한쪽 팔로는 닦여야 되고 또 내려야 되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많으니까 정말 손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 신체적으로 힘든 거?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이 큰 것 같아요. 기저귀같이 하는 자체가... 1세반은 “엉덩이 번쩍”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들 스스로 신체를 움직여 주면 교사들이 수월한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아직 안되니까 직접 몸을 들어서 기저귀를 넣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힘들죠.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특히 배변 후에 영아들을 씻기거나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리하게 손목을 사용하고 영아들을 들었다 내려놨다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다른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들의 배변활동을 돕는 과정에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3) 낮잠지도와 관련된 어려움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시간은 영아들에게 있어서 교실의 환경과 교사에 대한 편안함과 친숙함이 먼저 수반되어 안락한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이를 위해 영아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박윤자, 이대균, 2012). 특히 만 0세 영아반의 경우 개별 월령에 따라 오전, 오후에 1회씩 낮잠을 이루기도 하는데 교사들은 이러한 영아들의 개인차를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며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0세는 오전, 오후 낮잠을 자는데 1월생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이 되니까 오전낮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후낮잠은 또 너무 짧으니까 이친구가 자고나면 짜증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2학기 되면 낮잠을 오후에만 자는데 그게 또 걱정이죠. 9월 10월생 아이들은 또 오전에 졸려할 테니까..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너무 어린 친구와 큰 아이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활동할 때도 그렇지만 자는 시간도 너무 어린 친구는 수시로 자고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아지만 패턴이 다 짜져 있어서 이 시간에는 낮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개월 수가 느린 영아들은 10시에 일단 한 30분 자고 또 한 시간 놀다가 우유 잠깐 먹고 또 자고 30분 후에 또 깨고 이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렵죠.

(J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19)

교사들은 빠른 개월 수의 영아와 늦은 개월 수의 영아의 개인차에서 오는 서로 다른 패턴의 수면시간으로 인해 낮잠시간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같은 하루일과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낮잠을 이루기 힘들어하거나 또는 수면시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영아들을 지도하면서 점차 정해진 시간에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처음에 낮잠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3명이 갑자기 다 울기도하고 내가 3명 다 달래줄 수 없으니까 우리 반 애들이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셋 중에 둘이 되게 민감하고 한 명은 그냥 순한 편이에요. 둘 다 막 울어버리니까.. 다른 한명도 챙겨야 되는데 두 명이서 같이 그래 버리니까.. 애들이 원

하는 만큼 내가 해 줄 수 없어서 힘들었죠.

(D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낮잠시간도 다 자는 시간이 다르잖아. 또 기질이 까다로운 애가 있고 쉽게 잠드는 애가 있는데 낮잠을 재워야 하는데 두 명은 자고 한 명은 안자고 울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깨고 다른 아이들도 다 리듬이 깨지는 거고.. 그럴 때 힘들죠.

(C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또한 엄마의 품에서 잠을 이루던 영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은 매우 힘들다. 교사들은 영아들의 낮잠 적응 시 불안함을 느껴 울거나 낮잠을 거부하는 영아들로 인해 힘들어 하였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잠들기 힘들어 하는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들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였고 먼저 잠이 든 영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는 영아를 달래가며 낮잠을 재우는 것 또한 어려운 일 이었다고 한다.

낮잠을 동시에 재우는 게 어려워요. 셋을 다 안아서 재울 수 없잖아요. 어떤 친구는 젓병을 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우유를 먹고 잠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거의 토닥토닥 해주어야 되는데 이 친구를 토닥토닥하면 저 친구가 계속 달려들고 그래서 힘들죠.

(B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1)

낮잠시간에 업어서 재우는 애들도 있고 그냥 토닥여서 재우는 애들도 있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3명이 다 같이 누워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수면습관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중략) 한명이면 그 아이 위주로 해주겠지만 안 되잖아요. 3명을 봐야 하기 때문에...

(H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7)

위와 같이 교사들은 영아들의 개별 낮잠 습관에 따라 수유를 하거나 업어서 재우기도 하고 토닥이기도 하는 등의 요구를 수용해 주면서 낮잠지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다 수용하면서 다수의 영아를 동시에 재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었다. 그에 따라 교사들은 영아들이 안정적으로 낮잠에 적응하는 한 학기 동안 내내 어려움을 느끼며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를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주위의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로 인해 교사들은 의심이 대상이 되었고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었다. 영아들의 작은 사건사고에도 교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학부모들의 시선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며 같은 어린이집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 번은 등원할 때 갑자기 학부모가 우리 애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략)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엄마들이 교사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작은 상처에도 의심을 하거나..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하는 뉘앙스 있잖아요...

(C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아이들이 어려서 잘 다쳐요. 왜냐하면 교사가 순간 잘 못 봐서 다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아직은 걸음이 미숙해서 교구장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건데 다치니까 자꾸 죄송해야 되는 그런 상

황.. 교사로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애를 학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본다고 잘 봤는데 내가 자꾸 이런 거에 죄송하다고 부모님들한테 말해야 되는 거? 요즘에는 특히 더 다치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그럴 때 참 속상하죠.

(B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아동학대 사건 이후 교사들은 영아들의 작은 상처에도 혹시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만 0세 영아들은 신체 조절 능력이 미숙하여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영아의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비난과 질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사를 의심하는 등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학부모의 불신을 야기 시킨다. 때문에 교사들은 매 순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종일 영아를 정성껏 돌보고도 그 순간은 죄송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교사의 잘못으로 전가되고 자질로 평가 되는 것 같아 회의감이 든다고 하였다.

요즘 주위에서 말은 “힘들겠다, 안쓰럽다” 하는데 또 하는 말이 “너도 그런 교사는 아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설마 애 때리는 거 아냐?” 요즘 특히 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너도 때리니? 조심해라.” 이런 말... (중략) 이런 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최근 사회적 인식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이에요. 사실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 그거 봤어?” 저도 어디 가면 “너도 때리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그 사건으로 교사들 이미지가 너무 많이 안 좋아 졌어요.

(F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5)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너희 어린이집에 진짜로 때리는 선생님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없지? 없지?” 그러면서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요. 의심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 기분이 좀 그렇죠.

(D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은 교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어졌다. 최선을 다해 영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다수의 교사들은 일부 교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주변의 지인들에게조차 의심받는 상황에서 회의감을 느끼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5) 영아반 교사로서 느끼는 교육적 회의감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직전의 교육기관에서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영아에 대한 실습의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듯 유아 위주로 교육을 받은 영아반 교사들은 현장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과와 수업으로 인해 좌절감이 들기도 하였고 영아의 수준과 유아의 수준이 서로 다름을 알지만 교사로서 갖는 교육적 기대와는 달리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기대하던 유아교사의 모습과 역할로 인해 영아반 교사로서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함과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예상과 똑같이 정말 막막했죠. 우리가 짜 놓은 하루일과대로 안 흘러가고 영아들이다 보니까 개인차가 너무 크고 낮잠시간도 다 다르고 발달도 한두 달 차이에 의해서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영아들은..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뭔가 일률적이게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없고 하루일과를 진행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되게.. 충격? 그런 게 있었어요.

(D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5. 26)

한 교사는 처음 만 0세 영아를 보육하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과와 수업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특히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아반의 하루일과와 수업방식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아반과 다른 교육적 환경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저희 이번에 두부놀이를 했는데 두부 으개는 게 전부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으개는 것에서 좀 더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으개는 아이도 6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거를 먹기 바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먹기 바빠 가지고 기대했던 것 보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끼적이기 활동을 했을 때도 모 작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쌀 튀밥 같은 거라도 붙어보고 그러고 싶은데 그냥 먹기 바쁘더라고요.

(A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1)

제가 활동을 준비해 왔는데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짧게 하고 다른 활동에 관심을 보일 때, 저는 이제 또 결과물을 남겨 놔야 하는데... 그럴 때는 정말 당황스럽죠. 그 연령이 집중도 짧고 기다리기 힘들니까 그러면 또 저는 제제하게 되고 그래서 교육적인 면은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H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25)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이론상 영아들의 수준과 발달단계 등을 인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교육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각했던 방향으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아의 발달 특성상 짧은 주의집중과 흥미에 준비했던 활동을 다 진행하지 못할 경우 실망하기도 하고 결과물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만 0세는 제가 뭘 어떻게 해도 그 아이들은 뭔가 반응이라던가, 그런 게 없으니까.. (중략)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많이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양말을 못 신었다가 나중에 양말을 신게 된다거나 친구를 때렸는데 이제는 때리지 않고 말로 해줄 수 있다거나 그렇게 변하는 모습.. 제가 교육을 하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0세는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교사로서 무기력해 지는 것 같아요.

(E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아이들이 빨리 커서 나랑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을 익혀서 쪽쪽 크는 걸 보고 싶은데.. 0세는 그게 솔직히 안 되는 나이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 “좀 큰 애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난 교육적으로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나 스스로도 한계를 지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루일과에 내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힘든 상황에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F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7. 31)

가끔 저 스스로한테는 교사로서 뭔가 이렇게 마인드를 좀 더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0세는 처음에 한 학기 동안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더라고요. 애들하고 놀이하다 보면 뭔가 놀이가 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뭔가 막 하는 분위기니까 짝꿍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우리는 정말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수업 계획을 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점점 교사 마인드를 잃어가더라고요.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특히 교사들은 영아들과의 일과 속에서 교사로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육적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으로 변화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아들과의 교육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낙심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교육적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유아교사에 비해 보살핌의 비중이 큰 영아반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학기 초 학부모와 신뢰를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영아를 지도한다. 또한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를 대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교사들은 영아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론 영아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학부모들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끼기기도 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부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녀에게 무관심한 학부모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양육의 책임

이 부모가 아닌 보육시설로 전가되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아이에 대한 학부모의 무관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양육태도는 교사가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영아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교사는 아기 마음을 알겠는데 왜 엄마들이 아기 마음을 모를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혼자놀이 하잖아요. 방관자놀이 하고.. 그런데 엄마들은 여기서 아이들끼리 상호작용하고 노는 줄 아나 봐요. 그런데 애네 들은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낮잠 자고 나서 한 시간 있다가는 애들이 되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 짜증도 많아지고 그렇게 방긋방긋 웃던 아이들이 자꾸 변해요. 근데 엄마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습니다.” 말은 못하고.. 가끔 엄마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집이 최고예요. 최고의 보호자는 엄마예요. 집에서 보육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여기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다가 갈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하고 가면 좋겠는데 네일아트 받고 오고 막 영화 보러 갔다 오시면서 애기들이 힘든지 모르고 참 그럴 때 곤란한 그런 거? 왜 엄마들이 이렇게 모를까 자녀를..

(B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엄마들도 집에서 가정보육 하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요. 일 있다고 분명히 가셨는데 등산복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 데리러 늦게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종종 발견하니까..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지만 그 아이한테 올인 하는 건 옛날 말 인 것 같아요. 0세면 진짜 애긴데.. 처음에 전 그 생각 했는데 근데 어머님들은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우리 밖에 못 보는 거야? 이 엄마들은 못 보는 건데도 별로 그다지..

(G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25)

위와 같이 교사들은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무관심한 부모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면서 어린 영아들을 오랜 시간 보육해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영아들이 엄마를 찾거나 긴 보육시간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더 부모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해 주기도 하였다.

아침에 울면서 등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잠이 모자라서 아침에 오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충분한 휴식 후에 등원하게 해 달라. 얘기를 몇 번 영아수첩에 썼는데.. (중략) 아직 졸음을 참을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서 집에서 충분히 자고 와서 놀 수 있는 건데 잠을 안자고 와서 우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너무 바빠서 얼굴보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베이비시터에게 모든 걸 일임한다. 그분하고 상의하고 정말 무슨 위급한 상황일 때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저희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죠. 미리 엄마가 딱 이렇게 선을 그으시니까..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왜냐면 이 아이는 계속 힘들고 방황하고 있으니까요.

(C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5. 26)

한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하루일과를 보내면서 보다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지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무관심한 반응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의 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영아들의 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모든 양육의 책임을 교사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부모들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의 기회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2) 과도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부모들은 대부분 만0세 영아의 자녀를 처음 보육기관에 보내게 된다. 영아반 교사들은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영아의 발달과 기본적 욕구지원을 바탕으로 계획된 하루일과에 맞추어 영아들을 지도한다. 하지만 처음 보육기관을 접한 부모들은 이러한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영아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기대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교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모가 해야 할 역할까지 일임하며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어린이집에서 샤워를 시켜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샤워는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말 폭염이고 그래서 아이 자체가 땀이 많거나 옷을 너무 심하게 해서 등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씻겨주는데 당연히..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듯이 샤워 시켜 주냐고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엄마가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략) 또 하루일과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서 아무 때나 등·하원 시키려고 할 때.. 특히 영아반 일수록 그게 심하거든요. 점심식사 다 끝날 시간에 와서 점심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럴 때.. 힘들었어요.

(F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7. 31)

아침에 등원하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편할 때 그냥 맡기겠다. 이렇게 당연하듯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2~6시 까지 본인이 바쁘니까 그 때만 맡기시겠다고... 이런 말을 하실 때는.. 저희도 정해진 하루일과가 있고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하잖아요? 어머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당황스럽죠.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위의 사례와 같이 영아반 학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곳으로 생각하고 당연하듯이 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아이들이 함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 상 계획된 하루일과에 따라 주어야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또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학부모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들은 교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다.

2.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갖는 기대와 요구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따른 지원요구와 기대하는 바의 내용으로는 크게 만 0세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 만 0세 영아반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침서 개발,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로 범주화 되었다.

1) 만 0세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

현실적으로 영아보육은 탁아 개념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아보육 교사가 전문직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최희양, 2001).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하듯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주위로부터 느껴지는 영아반 교사에 대한 비전문적인 편견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교사로서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였다. 또한 영아반 보다 유아반 교사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학부모와 만 0세 영아반을 단지 편한 반으로 생각하는 동료 교직원들의 인식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특히 경력교사들 중에는

만 0세 영아반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주변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면서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0세반 담임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돌보는 게 주된 업무다 보니까... 예쁘게 말하면 제2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돌보미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있어서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서 보내면 끝이잖아? 라고 말하는데.. 몰라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0세반 교사를 약간 베이비시스터.. 이런 느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몇 세 말아요?” 했을 때 저는 연령을 얘기 안하거든요. 이상하게 안하게 되더라고요. 2세라 그러면 차라리 나운데 만0세라 그러면.. 돌 안됐다 그러면 더 깜짝 놀라고 “그런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해?” 되묻기도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D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모르는 사람들은 편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힘들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0세 하면 그냥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하고.. 저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직 표현도 못하는데 막중한 임무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충 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속상하죠.

(E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교사들은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비전문가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단지 영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호’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영아와 애착을 형성하고 끊임없는 상

호작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편견과 인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이야기 하였다. 무엇보다 영아기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원하고 있었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영아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엄마들이 그냥 아기 돌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아반 선생님들을 더 질 높게 생각하죠. 수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0세는 아이들을 더 세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모르죠.

(B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영아반이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큰 반에 비해서 수업 준비하는 것도 덜하고 상호작용이 덜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유아반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하지만 영아반은 좌식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큰 반에서는 0세반.. 영아반이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F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5)

이번에 교육을 갔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몇 세반 담임인지 묻더라고요. 0세반이라고 하면, “아.. 왜?” 그런 식으로 다시 물어요. 웬지 모를 왜 0세반이야? 이런 분위기? 아 내가 자질이 없는 교사여서 0세반을 맡은 그런 분위기인가? 왜 다들 그런 분위기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빨리 올해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교사들끼리도 경험이 필요한데.. 0세반 교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G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25)

또한 위와 같이 학부모, 원장, 동료교사들이 영아반 보다 유아반 교사의 질을 높게 평가한다고 느끼는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이 많았다. 특히 교사들은 영아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설장과 동료교사들의 경우 영아반은 편하다는 인식과 함께 영아반 교사의 자질을 낮게 평가하거나 유아반 교사를 더 인정해주는 분위기에 도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처음부터 겁먹고 “아 저는 0세 안할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겁먹고 싫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0세는 별로 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기를 보면 기저귀도 갈아야 하는데 그것도 겁나죠, 영아들은 대소변을 못 가리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별로 안아보지를 못해서 좀 서툰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저 아이들이랑 무슨 활동을 하지? 계획에 없는.. 무에서 유를 가지고 놀아야 하거든요. 영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아무래도 영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J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19)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워봤지만 사람들 인식이 0세는 나이가 좀 있는 선생님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혼인 선생님들은 “아 나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영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말으면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겁을 내는 것 같아요.

(H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7)

특히 만 0세 영아반의 경력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이 만 0세 영아반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주변 동료 교사들의 만 0세 영아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은 앞으로의 영아 보육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영아기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과 사전 경험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렇듯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기에 대한 존중과 함께 교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였고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교사들의 요구로 나타났다.

2) 만 0세 영아반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침서 개발

만 0세 영아반의 경우 현재의 지침서나 교육프로그램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영아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 교사교육, 어린이집 장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부족하여 어린이집 현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한계점이 있다(황해익, 김병만, 김미진, 2011).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과 참고할 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영아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같은 영아반 교사이지만 보육대상의 연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이 다름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만 0세 영아의 경우 만 1~2세 영아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교사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건데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 정말 0세 교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아반 교사를 위한 교육이 있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디테일한 교육이 없으니까 결국 교사가 체험을 통해서 체득을 한 후에 아이들한테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발달단계부터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쉽죠.

(B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1)

0세에 대한 자료는 정말 수업자료도 마찬가지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육

받을 때도 강사들이 예를 들어도 기본 2~3세고 영아라고 해도 1세지.. 0세에 대해서 뭐 기준을 삼아서 뭔가를 좋은 걸 제안해주고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0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디 가서도 듣기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정보도 없고..

(G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8. 25)

보육교사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0세 담임을 하면서 느꼈는데 보고 들을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세미나라던가 이런 정보통이 없죠. 교사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E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위와 같이 교사들은 만 0세 영아의 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교사들은 만 0세 영아반 교사만을 위한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 교사는 0세 영아반 교사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나 영아를 보육하면서 겪는 고민이나 어려움 등을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 등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처음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맡았을 때를 회상하며 겪었던 걱정과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해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경력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 0세를 담당하면서 마치 초임교사와 같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고 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멘토로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처음 0세 담임을 맡았을 때 두려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인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돌연사.. 이런 것도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안을 수 있을까? 처음엔 무섭고 두려웠어요. (중략) 처음엔 정말 자료도 없었어요. 0세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거의 유아 위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0세는 진짜 교사가 시행착오를 겪고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0세를 원에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음 선생님들이 0세 경험이 없을 때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봐요. 분유 타는 것부터 모르니까, 결혼 안 해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배 교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 0세를 맡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

(F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7. 31)

막상 현실적으로 0세 교사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수업준비라 던지 아니면 기본생활습관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나 실습을 나가서 배운다거나 이런 철저한 과정이 없어서 처음에 그걸 알아서 스스로 해결 해 나간다는 게 어려웠어요.

(I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교사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만 0세 연령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직무수행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재의 지침서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위한 보다 더 실질적인 지침서를 원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참고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만 0세를 보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과 경력교사의 조언을 덧붙인 지침서라면 무엇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3)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영아보육은 전문성과 헌신이 고도로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아교사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하루 종일 긴 시간동안 다수의 영아를 보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소와 서류 등 보육 이외의 많은 부수적인 업무들도 담당하면서 보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에 교사들은 좌절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영아와 교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장시간 종일보육에 대한 개선, 영아반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가 지원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영아와 교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보건복지부(2016)는 「2016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 반 편성 시 만 0세 반의 경우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3으로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월령의 차이가 크고 제각기 다른 영아들과 생활하면서 동시 다발적인 상황에서 개별 영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때문에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교사 한명이 다수의 어린 영아를 보육하는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만 0세 영아들은 월령에 따른 개별적인 돌봄과 이를 위한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다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세심하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한계를 느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영아비율이 1:2였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팔이.. 손이 두 개고 안아줘도 세 명을 어떻게 다 안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막상 0세반 교사를 하다보니까 확실히 두 명이랑 세 명은 다른 거 같아요. 아이들도 어린데 그때는 서로 눈치를 보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서로 사랑 받으려고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될 때인데 그런 게 많이 안쓰러운 거 같아요.

(E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일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인데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2가 적당한 것 같아요. 1:3이면 세 명에게 다 손이 갈 수가 없어요. 예민한 친구한테 먼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결국에는 세 명한테 골고루 관심이 못 가니까 그리고 교사도 3명이 벅차고 그럴 바에는 2명이 제일 알맞은 것 같아요. 영아와 교사에게 모두 알맞은..

(C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만 0세 영아들은 무엇보다 교사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은 혼자서 여러 명의 어린 영아들을 지도하면서 개별 영아가 원하는 만큼의 애정과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 교사는 예민하거나 월령이 느린 영아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손길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진정으로 교사와 영아에게 알맞은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해 재고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안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도 있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체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아직 걷지 못하는 영아의 경우 교사 한명이 모든 영아를 인솔하여 대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용은 영아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0세는 1:2였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어요. 왜냐면 불이 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나오는 게.. 0세는 일단 불이나면 양쪽으로 하나씩 엮고, 안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3명이면 그 아이를 들쳐서 엮을 수도 없고 그건 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2 비율 이였으면 가장 좋겠어요.

(J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교사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연구자 또한 만0세 영아들의 대피훈련 시 어려웠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다. 아직 걷지 못하는 어린 연령의 영아들을 양쪽으로 안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 명의 영아를 모두 함께 대피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영아들의 안전이 중요시 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서 비추어볼 때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조정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연구자 저널, 2015. 8. 17)

아이가 너무 많아요. 딱 들이였으면 좋겠어요. 1:2의 비율이었으면 좋겠어요. 손이 두 개잖아요. 안전사고에 대비를 못하는 거죠. 아이가 뭔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애기를 하나 안고 있으면 제가 민첩하게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깥놀이 나갈 때도 사실은 셋을 보니까 한 명은 아기 띠하고 한 명은 유모차 태우고 한 명은 걷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힘든 거죠. 그리고 바깥놀이 할 때 비담임 선생님과 함께 나가거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갈 수 가 없어요.

(B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1)

위의 사례에서도 영아의 안전사고 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다수의 영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실외활동 시 세 명의 영아를 모두 인솔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하였다. 개별 영아의 신체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실외활동을 진행해야 하지만 교사 혼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영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에 실외활동을 나갈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영아들이 즐거움을 느끼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지만 다수의 영아를 보육해야 하는 현재의 보육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일부에서는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보조 인력으로 비담임 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모든 연령에 도움을 주어야하는 비담임 교사의 경우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비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모든 반을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 할 때는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다른 반을 도와주시거나 그럴 때가 많아서.. 한 분이니까 계속 도와달라고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대부분 혼자 아이들을 보육하죠.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비담임을 늘리고 보조교사를 늘리고... 이런 건 솔직히 비담임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애들을 봐주는 손이 하나 늘는 것뿐이지. 차라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비담임은 아이들이랑 같이 하루 종일 있는 정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일손을 그 당시 잠깐은 털어 준다고 해도 완벽하게 털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D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또한 보조 인력의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교사들의 근본적인 어려움

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

셋이 동시에 올 때.. 내 팔은 두 개잖아요? 내 팔이 세 개가 아닌데 한꺼번에 케어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삼둥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세쌍둥이를 키워 라고 하는데 우리 보육현실은 0세 교사들이 삼둥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교사와 아이들의 아동비율을 줄이는 게 정말 보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이 좋아져야지 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오래오래 일 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F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7. 31)

이렇듯 여러 명의 어린 영아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보육환경에서 교사들은 유아반에 비해 적은 인원이지만 영아반의 특성 상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개선을 통해 만 0세 영아반의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사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염원하였다.

(2) 장시간 종일보육의 개선

영유아보호법(2014)에 의하면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종일보육을 원칙으로 어린이집의 일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시간은 맞벌이 부모에게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혼자서 장시간 종일보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잠깐의 휴게시간도 없이 영아들을 돌보며 과중한 업무들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의 연속이라고 하였다.

보육시간이 너무 길어요. 중노동 이예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죠.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안자면 교사는 정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 눈에서 아이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제가 손에서 뭘 쓰고 있다.. 라는 건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잠깐 교사가 손 닦고 있는 시간에도 아이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건데...(중략)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J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종일보육으로 인해 업무의 처리시간이 부족하여 낮잠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 0세 영아들의 특성 상 낮잠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교사의 손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영아들이 다 하원한 후에 남아 늦게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면서 장시간 종일보육에 대한 대책과 함께 보육시간 자체를 줄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통합시간이 늦으니까, 유치원과 비교를 하면 그렇긴 한데 수업을 준비 할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내 업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일지도 써야 되는데 결국은 야근을 하게 되잖아요? 통합시간이 조금만 더 빨리만 되도 좋겠어요. 보조교사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통합시간을 당겨서 그 시간에 봐줄 수 있는 종일반 교사 같은 그런 교사를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보육의 질도 더 높아지고 교사의 스트레스도 줄지 않을까요?

(C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수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교구제작을 한다거나 뭔가를 만들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계속 있으니까 청소도 해야 되지, 종일 보육해야 되지, 유치원은 교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딱 있잖아요. 방과

후를 보내고 종일반으로 보내고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더 못 해주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교재교구의 질이 좀.. 빨리 빨리 만들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E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유치원처럼 종일반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지쳐서 다음날 수업준비를 질적으로 높게 할 수 가없어요. 유치원하고 비교해보면 다들 어린이집이 질이 떨어진다고 엄마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나 퇴근 할 때 까지고 안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질적으로 좋은 거를 바랄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F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5)

또한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영아반 교사들이 겪는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경적 처우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근무환경에서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영아들과의 내일을 위해 수업을 준비하고 휴식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제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렇듯 교사들은 장시간 종일보육에 대한 어려움과 교사의 노고가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유치원에서의 종일반과 같은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3) 영아반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의 대부분은 많은 업무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특히 이러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

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담당연령과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반과의 급여 차이는 영아반 교사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왜 누리과정 하는 유아반은 누리수당이 있잖아요? 사실 돈이 다는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 같아요. 누리 선생님들은 같은 근무 시간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처우가 더 있는데 영아교사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아 교육을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누리과정을 한다는 건 어쩔 거나 아이들에서 어떤 교육을.. 더 뭔가를 제공하는데 영아는 그런 것 보다는 진짜... 몸을 쓰는? 그런 거는 교사로서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월급 주자잖아? 이런 느낌? 영아반 교사들도 뭔가 수당을 줬으면 좋겠어요. 유아반 교사랑 차별하지 말고,, 0세반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들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만 0세반을 해 본 사람은 알아요. 6,7세도 힘들긴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0세도 힘든 연령인데, 왜 유아반은 누리수당이 나오고 왜 영아반은 그만큼 안 나오고.. 물론 유아반은 누리과정에 대한 수업을 하지만 만 0세를 해 본 선생님들은 그 고충을 알듯이 더 힘들다면 힘들 수 있는데.. 그 수당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따지고 보면 더 받아야 하는 연령대 일 수도 있는데 어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수당은 더 적고.. 만 0세반 교사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C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급여에 대해 대부분 박봉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연구자 역시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하면서 급여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특히 영아반 교사를 담당하면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없었고, 유아반 교사와는 다른 수당과 그에 따른 급여의 차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어느 연령을 담당하던지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

는 교사들은 모두 중요하며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차별은 영아교사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 교사의 말처럼 다시는 만 0세반 교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한다.

(연구자 저널, 2015. 8. 7)

이렇듯 영아반 교사들은 유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로 인해 회의감을 느끼며 교사로서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의 영아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영아반 교사의 역할을 존중하여 정책적인 관심과 변화를 기대하며 처우개선비의 비중을 늘려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영아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영아반 교사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3.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보람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영아들을 보면서 엄마처럼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며 스스로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함께 의지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팀티칭 교사를 만나 한 반을 운영해 나가면서 얻는 즐거움과 교사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는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영아반 교사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또 다른 이름 '제2의 엄마'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렇듯 교사들은 ‘제2의 엄마’ 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영아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영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 또한 영아의 성장, 변화 등 엄마의 사랑이 부족한 부분을 교사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키운다는 보람을 통해 교사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1) 엄마처럼 교사를 따르는 영아

학기 초 영아와 스킨십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영아들은 누구보다 교사에게 의지하며, 때론 엄마처럼 교사를 따르게 된다고 한다. 또한 낮설어 하는 영아들과 마찬가지로 교사 또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영아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 교사들은 다른 연령에서 느낄 수 없는 보다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영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선생님이 안아 주면 딱 그치고 웃을 때가 있어요. (중략)
어느 때는 놀이를 하다가도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안아주고 달래주면 방긋방긋 웃어요. 그럴 때 보면 교사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나를 엄마처럼 따를 때는 보람차구나 하고 느끼죠.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루일과를 보내며 불편을 느끼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울음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때마다 교사들은 영아를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면서 영아에게 안정감

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영아들이 이러한 교사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며 금방 울음을 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처럼 자신을 따르는 영아의 모습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지내면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어요. 귀엽고 예쁘잖아요. 예쁜 나이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귀엽죠. 저는 안아주고 스킨십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안아주면 아이도 저한테 착 안길 때 되게 보람 있더라고요.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제가 표현했을 때 그 아이도 저한테 표현해주고...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 보면 그게 그냥 보람인 거 같아요.

(D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또한 교사들은 영아들과 지내는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엄마에게 안기듯이 교사에게 꼭 안겨있는 영아들과의 스킨십은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면서 서로의 행복한 감정을 교감하는 것 또한 보람이라고 하였다.

한 교사는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힘들어 했던 영아들이 적응하여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면서 느끼는 기쁨은 매우 크다고 하였다.

어느 때는 부모님한테 안 가겠다, 나한테 오겠다고... 하원 때 할머니 데리러 오셨는데 할머니 보고 안 가겠다고.. 교실에서 나한테 안겨서 안 나가겠다고 그럴 때.. 선생님이 그렇게 좋니?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도.. (중략) 내가 그래도 이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구나, 애네 들이 날 잘 따르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죠.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이와 같이 때로는 교사와 떨어지기 힘들어 하며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영아와 지내는 시간 동안 교사로서 충분

히 엄마와 같은 사랑을 주고 있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 자신도 영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들은 영아들과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어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영아들로부터 엄마와 같은 존재감으로 인정받았을 때 영아반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그 속에서 교사 자신 또한 영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중한 감정과 함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2) 엄마의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적인 순간들

교사들은 영아들의 성장발달을 지켜보면서 교사로서 영아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영아를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만 0세 영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렇듯 기어 다니던 영아가 걸음마를 하고 웅얼이를 하던 영아가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영아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본다는 뿌듯함과 함께 그에 따른 특별한 감동을 경험하며 교사 또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학기 초 만 0세 영아들은 대부분 기거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교사들은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속에 걸음마를 함께 연습하며 엄마의 마음처럼 걷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였다. 한 교사는 영아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서 있다 부르면 걸어와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걷는다고 박수치는 그런 것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아이를 안 키워 봤으니까.. 근데 저한테 진짜 애착을 갖던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막

화장실도 못가고 제가 화장실을 가면 막 울고불고 자지러지는 아이였는데 최근에 세워 놓고 오라고 했는데 걸어서 오는데 너무 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아이가 첫 걸음마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또한 교사들은 영아가 말을 하게 되면서 더욱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특히 말하지 못했던 영아들이 웅얼이를 하고 후에 ‘엄마’, ‘모야?’ 하며 말을 시작하게 될 때 교사들은 순간 놀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영아들과 지내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는 엄마와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0세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크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못하던 것을 내가 가르쳐서 할 때, 그게 큰 애들이 하는걸 보는 것 보다 0세반 아이들이 하는 걸 보는 게 곱절로 보람이 있어요. 기어 다니던 애가 걷고 어떤 애가 뛰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요. 말을 못했던 아이가 “이거 모야?” 하고 말할 때 그것 하나만 봐도 진짜 보람을 느끼거든요. 내 자식 같고.. 내가 이만큼 키웠구나. 힘들었지만 그거에 보람을 느끼죠.

(F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5)

아이들은 하루만.. 일주일만 지나가도 확확 크는 게 보여요. 신체적으로 눈에 뭔가 확확 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이 왜 우리 아이가 “엄마” 했어, 라고 갑자기 되게 놀라거나 “걷는다, 걷는다.” 이런 순간에 놀라는!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어요. (중략) 내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구나, 보다는 이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그런 쪽으로 큰 보람을 느끼죠.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이와 같이 교사가 아닌 엄마의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한 영아반 교사들은 다른 연령의 교사로서는 느낄 수 없는 만 0세 영아반 교사만이 경험할 수 있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아들의 성장발달에 교사들은 곧 영아들이 내 아이 같은,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 보다는 키운다는 보람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영아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변화에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였다.

(3)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반

교사들은 만0세 영아의 경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과에서 교사의 손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기 초에는 모든 활동에서 미숙하여 교사의 도움을 받던 영아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새 하나씩 해나가게 되면서 영아들의 작지만 큰 변화에 교사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아들을 변화를 지켜보면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영아반 교사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기 초 교사들은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영아들을 보면서 ‘언제쯤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친구를 알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영아들은 어느새 교사를 떠나 스스로 활동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반에 00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생일이 제일 빨라요. 하나 알려주면 계속 따라하고 하나하나 알아갈 때 재밌더라고요. 친구를 챙겨주기도 하

고, 먼저 나와서 유희실에서 놀고 있을 때는 친구들이 한두 명 나올 때 마다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반겨요. 그리고는 막 손짓으로 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왔을 때도 인사하고 그런 게 많이 즐겁더라고요. 재밌고 신기하고... (중략) 뭔가 사회성 발달이 많이 된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

(E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위의 사례와 같이 영아들은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며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낯선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고 반기는 모습에 교사는 영아의 사회성 발달과 함께 영아반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처음에 역할 수업을 했을 때 전화기를 대고 “여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잇감을 다 아무거나 귀에다 대요. 이 아이들이 가상놀이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전화기라는 것은 이렇게 대는 거구나 하고 알지만 전화기 자체를 전화기로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 전화기를 들고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의 작은 변화 때문에 즐겁죠.

(B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또한 한 교사는 놀이시간에 나타나는 영아들의 변화에서도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학기 초 전화기를 입에 넣고 탐색하며 놀이시간을 보냈던 영아들이 어느 순간 전화기를 귀에 대고 놀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아들의 성장과 변화에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처음에 교사는 ‘영아들이 전화기를 사용하여 놀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놀이시간을 통해 꾸준히 상호작용을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들의 변화는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었다고 하였다.

‘그대로 멈춰라’ 라는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멈춘다는 걸 처음에는 몰

랐어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을 따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아이들도 하나씩 알아가고 있구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손가락 똑딱똑딱 해볼까?” 하고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냥 멍뚱멍뚱 보고만 있고 눈과 손의 협응력도 안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과 패턴도 알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가니까 그런 게 이루어 졌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끼죠.

(I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특히 교사들은 영아들과의 활동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교사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던 영아들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활동을 따라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나가면서 교사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손유희를 하거나 신체활동을 할 때 교사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교사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렇듯 영아들의 교육적인 기대와 효과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알기에 교사로서 더욱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4) 영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치유되는 교사

교사들은 영아들과 생활하며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결국은 영아들에게 치유 받고 있다고 하였다. 즉, 영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힘은 교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준비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영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어린 영아이지만 교사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아해주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내가 준비한 활동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참 이 수업 요번에 잘했네.” 그런 게 보람이 있죠. 준비한 활동을 정리하기 전까지 책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 게 즐겁죠. 보람 있고. (중략) 또 작은 수업을 준비 했지만, 작은 활동에도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니까.. 힘들어도 그 모습에 힘을 얻죠.

(B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일을 마치고 아이들과 찍은 활동사진을 정리하려고 보면 내가 준비한 것에 아이들이 이렇게 웃었고 활동을 잘 했구나.. 하고 느끼죠.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결과물 이잖아요.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수업준비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즐거웠구나, 아 그래도 잘했다. 내일도 또 잘해보자 라고 생각하죠.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작은 활동에도 행복해 하는 영아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즐겁게 참여하는 영아들과 활동 후 밝게 웃는 영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잊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영아들은 교사에게 내일을 준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다치는 그런 빈번한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 직업인가? 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것 있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나랑 즐겁게 있고 생활하는 모습. 그 웃는 모습만 보면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거? 그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I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한 교사는 영아들과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사건사고들로 인해 교사로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였고 이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아들이 즐겁게 생활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사들은 힘들고 지칠 때 무엇보다 위로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영아들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2) 함께 공감해 주는 팀티칭 교사

만 0세 영아반의 경우 팀티칭 체제로 2명 또는 그 이상의 교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한 반을 운영하며 파트너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파트너 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동료애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사로서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동반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1) 내가 힘들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파트너

교사들은 만 0세 영아반의 경우 함께 반을 이끌어 가는 팀티칭 교사와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이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교사들은 힘이 들 때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공감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과 동시에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이러한 점에서 팀티칭 체제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같은 일과를 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 즐거워요. 같이 공통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이야기 나누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서로 공유도하고 그래서 좋아요.

(H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7)

퇴근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뭔가 쌓였던 부분을 같이 풀면서 힘든 학부모님들 이야기 나누고 “아, 오늘 너무 힘들어” 하면서 서로 맞장구 쳐줄 때, “맞아, 학부모님 너무 까탈스러워.” 하고 이야기 나누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I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공감해줄 때, 만 0세는 그건 거 같아요. 내 힘듦을 알아주는 거? 각자 아이들 보기도 바쁘고 그러다보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일과 마치고 “오늘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C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6)

이렇듯 교사들은 바쁜 하루일과 속에서 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공감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교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동시에 위로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와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수고의 인사를 건네는 말 한마디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파트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2)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만0세 영아반을 맡은 초임교사나 미혼교사의 경우 경험해 보지 못한 만 0세 영아의 지도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기혼자나 경력자인 파트너를 만나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나에게 본보기가 되는 파트너 교사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또한 경력교사의 경우 함께 반을 운영하며 의견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팀티칭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작공 선생님이 워낙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주세요. 엄청 흥겹게 잘 해 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흥겹게 한다고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중략)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던지 학부모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많고 제가 알아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작공 선생님의 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의지도 했고 도움도 받았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적으로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 보다는 경험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I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경력이 낮은 교사의 경우 자신보다 높은 경력교사를 통해 영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학부모님과의 의사소통, 수업에 관한 기술들을 배워나가며 파트너 교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한 영아들을 대하는 경력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교사로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이들에 대해 짝꿍 선생님이랑 서로 상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을 봤을 때 나의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짝꿍 선생님들이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선생님 오늘은 OO가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를 한 번 더 보게 되죠.

(J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17)

파트너 선생님이 다행히 잘 따라 주기도 하고 저도 최대한 맞춰 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의견을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인데 파트너가 아직은 초년생이고 어리기도 하니까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 그 친구도 수용을 해주는 편이고.. 저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죠.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또한 경력교사의 경우 파트너 교사와 의견을 교류하며, 영아들을 함께 돌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서로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팀티칭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면서 파트너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교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영아반 교사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교사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3) 교사를 믿고 지지해 주는 학부모

학기 초 만0세 영아반 학부모의 경우 어린연령의 교사나 미혼교사에게 염려의 눈빛이나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영아의 사소한 것까지 학부모와 소통하고 육아에 대한 고민도 나누면서 믿음과 신뢰를 받게 된다. 영아반 교사들은 학부모의

감사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교사를 믿고 지지해 주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영아의 성장에 대한 공감과 함께 학부모와 교사는 더욱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동육아를 한다는 뿌듯함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1) 감사의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는 교사

학부모의 말 한마디, 감사의 편지, 쪽지 한 줄에도 교사들은 감동과 보람을 느낀다. 이렇듯 교사의 노고를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학부모의 격려에 교사들 또한 학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해주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수첩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아이들이 잘 크고 발전 하는 것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잘해주신 덕분이라고.. 선생님이 이 노래를 알려줘서 집에서 이렇게 잘 부르는 거 같다고 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해주실 때 기쁘죠.

(A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어느 날 학부모님께서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 때 왔는데 그나마 선생님들이 잘 해 주셔서 아이가 이만큼 컸어요,” 라고 말 한마디씩 해주실 때.. 감사하죠.

(D교사 전화면담, 2015.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특히 영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노고를 알아주고 교사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학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학부모로 인해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다.

첫 번째 스승의 날 할머니가 직접 아이와 함께 끼적이기 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그럴 때 참 감동받았거든요. 아기 사진을 붙이시고 그 밑에다 끼적이기를 해가지고 주셨어요. 아기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할머니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 참 보람이 있었어요.

(B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5. 21)

이와 같이 교사들은 학부모의 거창한 감사표현 보다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나 편지에 감동 받고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한 교사는 스승의 날 영아의 사진과 함께 편지를 써서 주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영아반 교사로서 특별한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렇게 교사들은 학부모의 격려에 영아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보람과 함께 교사로서 존경받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2) 교사와 학부모의 행복한 공동육아

학부모는 교사와 신뢰를 형성하게 되면 영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고민이나 육아에 어려움을 느낄 때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교사는 이때에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영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보람과 함께 공동육아라는 개념의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육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아이에 대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될 때 되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육아라는 그런 느낌.. (중략) 저는 공동육아라는 개념도 뿌듯하고 학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 하면서 아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E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하원시간에 “어머니 오늘 00가 될 했어요.” 하고 제가 이야기 하면 학부모님도 “선생님 어제 집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그걸로 이제 나름 보람을 느끼죠. (중략) 개월수가 낮은 친구들은 기저귀 갈다보면 발진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씻겨서 약을 발라주기도 하는데 제가 케어해주고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 하고 하면서 금세 호전되고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이 인정해주면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G교사 1차 심층면담, 2015. 8. 5)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등·하원 시간을 이용해 대부분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영아의 하루일과나 성장에 대해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영아들의 사소한 변화나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한다고 하였다. 이때 교사들은 학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인정받고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저희는 성장앨범이라고 한 달에 한번 씩 교사들이 원에서 지내는 활동들을 사진으로 한 면에 앨범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활동지에 내용을 쓰고 일상에서 잘 지내는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면 집에서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 다음장에다 꾸며서 오고... 교사와 가정과의 상호작용?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첨부해서 만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의 생활을 교사들도 알 수 있고 엄마들도 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고, (중략)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추억이 되죠.

(D교사 2차 심층면담, 2015. 6. 5)

또한 교사들은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영아의 성장에 대해 공유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교사들

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학부모들이 놓칠 수 있는 영아의 발달에 대한 부분이나 육아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론 조언을 하기도 한다. 그로인해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신뢰를 느끼고 교사 또한 보람을 느끼며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에 만족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영아들과 생활하며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대와 요구는 무엇이며, 영아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첫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학기 초 적응기간 동안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음 만 0세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영아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걱정이 앞섰고, 개별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영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또한 영아와의 바람직한 애착을 맺기까지 다른 연령의 영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영아들의 다양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며, 특히 영아의 애착행동 중 울음과 같은 신호체제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미경(2003)의 연구에서도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더 어린 연령 즉, 연령에 의한 성숙의 정도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띄

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와 원만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다수의 영아와 애착을 형성하면서 개별 영아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의 초기적응 과정에서 동시에 여러 영아의 각기 다른 요구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사에게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교사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김운숙, 조희숙(2011)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교사의 역할, 지도방법 등의 교사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전교육과 기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기 영아에 맞는 애착형성의 방법을 찾기 위한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듣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경력교사의 멘토로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영아들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영아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고 이러한 영아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영아의 문제행동 수정의 과정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울거나 떼를 쓰며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들의 특성으로 인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사 자신을 보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인내심과 기다림의 과정에서 가중되는 정서적 피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영아의 발달특성상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교사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박남희(2013), 서경화(2013)와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성은영, 최승연(2015)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언어표현의 한계, 영아의 월령에 따른 급

격한 행동변화와 편차로 인해 영아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영아교사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영아의 울음과 행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영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영아들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박경희(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경력교사와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영아들의 일상생활 및 기본적 욕구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반의 하루일과는 영아에게 있어서 ‘낮설음’ 과 ‘어려움’ 을 느끼는 과정이며, 영아는 식사시간에 새로 나온 음식을 보며 낮설어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잘 먹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낮잠시간과 기저귀갈이를 하면서도 짜증이 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는 노희연(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이러한 영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느끼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특히 영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은 영아반의 하루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다수의 영아를 돌보며 개인차를 고려하고 개별적인 요구와 습관을 수용하여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육아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막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초임교사들이 영아들의 실질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본적인 욕구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는 최지현(2012)의 연구와 일치하며, 영아들의 낮잠지도와 식사, 배변훈련 등 자조기술이 부족한 영아들을 개별적으로 돕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조미숙(2015)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영아교사의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교사를 양성하는 직전 교육에서 부터 영아에 대한 교육과 사전실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직 교사를 위해서는 만 0세 영아의 연령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서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도울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주변의 시선과 인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한 선입견으로 인해 같은 어린이집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며, 영아들의 작은 사건사고에도 교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학부모의 태도와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뉴스에서 보여 지는 영아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인우(201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영아반 교사에 대한 주변의 오해나 편견은 교사의 정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영아교사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아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만 0세 영아교사는 교육적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아위주로 교육을 받은 영아반 교사들은 현장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과와 수업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하였고 영아의 수준과 유아의 수준이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있지만 교사로서의 교육적인 기대와는 달리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사들은 영아반 교사로서 생활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기력감과 회의를 느끼며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2010)의 연구에서도 유아중심이 직전 교육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교사 자신의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의 특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유아교사에 비해 교수효능감이 낮고, 유아교사가 전문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는 이완희(2004), 조혜진(2007)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보육에 대한 중요성과 돌봄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비 유아교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처음 영아반을 담당하는 경력교사들의 교육적 회의감과 혼란을 막기 위해 학기 초 영아반 운영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사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면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고 부모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모가 해야 할 역할까지 교사에게 일임하면서 기대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 김윤숙, 조희숙(2011)은 영아 초기 적응과정에서 부모의 협조부족과 자기 아이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부족,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무례한 행동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박소윤, 서현아(2015), 서경화(2013)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아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어린이

집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나 일일교사로서 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학부모의 무관심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인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개선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도적 지원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만 0세 영아반 교사로서 갖는 기대와 요구

첫째, 만 0세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위로부터 느껴지는 영아반 교사에 대한 비전문적인 편견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교사로서 회의감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영아기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인식에 대한 변화와 함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반 교사 보다 유아반 교사의 직을 더 높게 평가하는 학부모와 만 0세 영아반을 단지 편한 반으로 생각하는 동료 교직원들의 인식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특히 경력교사들 중에는 만 0세 영아반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주변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면서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최희양(200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데 영아보육교사들은 단순히 영아를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만 하는 ‘보모’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윤영, 배지희, 김은혜(2013)는 영아반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영아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한바 있다. 따라서 영아기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은 앞으로의 영아 보육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영아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둘째, 만 0세 영아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침서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과 참고할 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영아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0세 영아의 경우 만 1~2세 영아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육대상의 연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만 0세 영아반 교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나 세미나 등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보다 더 실질적인 지침서를 원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참고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만 0세를 보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과 경력교사의 조언을 덧붙인 지침서라면 현재 만 0세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에게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는 이진희, 임진형(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월령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요구하였고, 대학교육에서도 영아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만 0세 영아반의 예비교사들의 두려움과 현직교사들의 역할수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사교육프로그램과 지침서의 지원을 요구하며,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여 경력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만 0세 영아반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초임교사와 같은 두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교사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하루에도 10~12시간의 긴 시

간동안 종일 다수의 영아를 보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소와 서류 등 보육 이외의 많은 부수적인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보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이러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였다.

먼저 영아교사들은 영아와 교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조정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 비해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아동비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는 서의석(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 한명이 감당하는 영아의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들은 0세 영아들은 개별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만 다수의 영아를 대상으로 세심하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한계를 느끼며, 안전사고 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음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장시간 종일보육에 대한 대체인력의 지원과 영아반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 인력의 지원으로 인해 영아를 위해 수업을 준비하고 휴식을 통해 재충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제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며, 담당연령과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반과의 급여 차이로 영아반 교사로서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변화를 기대하며 처우개선비의 비중을 늘려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유아반 교사와의 처우개선비 등의 수당과 급여의 차이는 영아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신수진(201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교사를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영아반 교사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3) 만 0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보람

첫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제2의 엄마’ 라는 이름으로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아의 성장,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부족한 부분을 교사로서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키운다는 보람과 함께 교사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영아들과 스킨십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교사들은 다른 연령에서 느낄 수 없는 보다 깊은 친밀감을 느끼며 엄마처럼 교사를 따르는 영아를 보면서 기뻐하였고 영아들의 성장과정을 함께 한다는 뿌듯함과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교사 또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처음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영아들의 작지만 큰 변화를 지켜보면서 교사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사들은 영아들과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지만 동시에 영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치유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혼돈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며 엄마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이완희, 박찬옥(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영아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며 그 속에서 애착을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엄마로서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양지영(2007)의 연구와도 역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이 영아와 함께 생활하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점차 긍정적인 측면의 보람과 기쁨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둘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팀티칭 교사와의 관계에서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며 보람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파트너 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동료애를 느끼고 있었으며,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교사

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만 0세 반을 처음 맡은 교사나 육아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기혼자나 경력자인 파트너를 만나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경력교사의 경우 함께 반응 운영하며 의견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소연(201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경력이 낮은 저경력 교사들은 보육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영아들의 개별적인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경력이 높은 교사와 팀티칭을 하게 됨으로써 노하우와 수업진행 능력, 영아들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에게 한 반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교사의 존재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사를 믿고 지지해 주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학기 초 만 0세 영아반 학부모의 경우 어린연령의 교사나 미혼교사에게 염려의 눈빛이나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학부모와의 소통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점차 믿음과 신뢰를 받게 된다. 교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감사의 말 한마디를 표현하는 학부모로부터 보람을 느끼며 영아의 성장에 대한 공감과 함께 학부모와 더욱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공동육아를 한다는 뿌듯함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학부모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지도방식을 수용하여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학부모의 진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에 보람을 느낀다는 신수진(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학부모와의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은 만 0세 교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과 기대 및 보람에 관한 논의에 기초하여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애착관계 형성하기,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들과 소통하기, 일상생활 및 기본적 욕구 지원하기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로 인해 작은 사건사고에도 오해를 받으며 교사를 의심하는 시선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아중심의 직전 교육으로 인해 영아반 교사로서 교육적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다. 특히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 양육태도와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따른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었다. 특히 만 0세 영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라고 있었으며,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만 0세 영아반만을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과 지침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만 0세 영아의 특성상 만 1~2세 영아와는 다른 교사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과 장시간 종일보육에 대한 대체인력의 지원, 영아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의 지급을 바라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로 인해 영아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사와 영아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셋째, 만 0세 영아반 교사들은 ‘제2의 엄마’ 라는 이름으로 영아들과 생활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처럼 자신을 따르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영아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며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 또한 영아들로 인해 치유 되었고 스스로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함께 의지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팀티칭 교사를 만나 한 반을 운영해 나가면서 교사들은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교사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고 교사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는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인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영아반 교사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만 0세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90%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지역과 기관유형의 다양성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1학기에 걸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만 0세 영아의 특성상 1학기 와 2학기의 발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를 계획하여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의 연령, 경력, 미혼과 기혼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인을 비교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진, 박혜경 (2007). 영아 언어발달 연구의 경향 분석: 0~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27(2), 139-162.
- 곽금주, 김연수 (2014).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 (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구윤정 (2010). 0,1세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내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민균 (2005). 아동발달. 서울: 창지사.
- 김미나 (2015). 0세아전용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 (2014).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개선을 위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8). 집단활동에서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배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2). 영아보육의 질적 평가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환, 전셋별 (2010). 경력에 따른 영아반 교사들의 어려움과 관심사, 현직 교육 요구에 관한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239-267.
- 김영모 (2000). 21세기 아동보육의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1, 1-11.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유진 (2003).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 조희숙 (2011).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의 교사-영아, 교사-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어려움. 한국유아교육학회, 31(6), 121-147.
- 김윤자 (2005). 0세아 보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0세아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영유아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유아정책연구소.
- 김익균, 노은호, 박금희, 이미정, 이순영, 이행숙, 이혜숙, 정해은, 조미환, 조혜경 (2003). 보육학개론. 서울: 교문사.
- 김정미 (2002). 보육시설 영아반 실내·외 환경실태와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대전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05). 어린이집 교사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2009).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보육정책연구, 5(2), 27-43.
- 김지현, 양옥승 (2009). 어린이집에서 영아보육이 지니는 의미: 보살핌과 가르침. 유아교육연구, 29(2), 163-189.
- 김현미 (2005). 보육교사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호 (2010). 영·유아발달의 이해. 대전: 대경.
- 김호인 (2010).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희연 (2014). 0세 영아를 위한 신체운동 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6-12개

- 월 영아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9, 567-587.
- 노희연 (2014).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일과의 의미 탐색: 0,1세 영아반의 배변 및 기저귀 갈기, 낮잠자기, 간식 및 식사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8(4), 457-478.
- 대한소아과학회 (2007).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
- 박경화 (2011).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 (2015). 교사-영아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멘토링 적용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희 (2013). 만 1세 영아반 교사로 살아가기.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덕승 (2007). 영아기 뇌발달의 특성과 보육활동 방안. 한영논집, 11, 359-416.
- 박병희 (2002). 관계적 교육 공동체 속의 부모. 영아기, 파트너쉽으로서의 보육.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 국제학술대회, 31-52.
- 박소윤, 서현아 (2015).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반 보육교사의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 11(2), 331-354.
- 박유미 (2008). 영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과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자, 이대균 (2012). 영아반의 낮잠시간이 갖는 의미 고찰: 만 1세와 만 2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6(2), 187-214.
-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 (2010).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 변형영유아교육연구, 4, 65-87.
- 보건복지부 (2013). 제 3차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 2013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경화 (2013). 영아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근복 (2009). 보육교사 근무환경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충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의석 (2006).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실태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숙 (2007). 영아교사의 역할에 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영, 최승연 (2015). 만 1세 신입영아교사의 어려움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3), 385-403.
- 손주리 (201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만족 결정요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 (2015).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보람과 어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연 (2005). 영아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보경 (2007). 보육시설 영아반 담당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 최경애, 이혜원 (2015). 영유아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양지영 (2007). 영아반 미혼초임교사의 역할과 갈등.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인우 (2013). 영아교사의 정서적 어려움과 정서적 지원 요구에 관한 이야기.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구종, 조희정 (2007). 영유아 보육학개론. 고양: 공동체.
- 유나영 (2012). 실내·외 자유선택활동에서의 유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상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효순, 최경숙 (2006). 아동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효순, 원혜경, 김정희 (2013). 영아발달. 서울: 창지사.
- 윤애희 (2004). 교사를 위한 유아놀이지도. 서울: 창지사.
- 윤주화, 이종희 (1998).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 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171-186.
- 이경림 (2005).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인식도와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 곽승주, 전영희 (2014). 영아발달. 파주: 정민사.
- 이석무 (1994). 아동보육사업 경영 경제론. 서울: 혜화당.
- 이소연 (2015). 어린이집 영아반 팀티칭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 이혜승, 이성옥, 황혜신, 이완정, 이소은, 권혜진, 이영미, 정윤주, 한유진, 성미영 (2010).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영, 이정희, 김은기, 이미란, 조성연, 이정림, 유영미, 이재선, 신혜원, 나종혜, 김수연, 정지나 (2009). 영유아발달. 서울: 학지사.
- 이완희 (2004).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완희, 박찬옥 (2005). 2세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 유아교육학논집, 9(3), 5-30.
- 이원영 (2004). 유치원교육에서의 보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세계적 흐름. 교육마당 21, 통권(237), 38-41.
- 이윤영, 배지희, 김은혜 (2013). 영아반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 기대 및 요구. 아동교육, 122, 201-224.
- 이지혜 (2013). 어린이집교사의 이직 및 퇴직 배경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 (2001). 보육교사-취업모와의 관계와 보육교사의 보육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희, 임진형 (2004).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요구분석. 한국보육학회지, 4(2), 193-215.
- 이현경 (2003). 걸음마기 영아의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희 (2000).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전미경 (2003).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홍주, 최유경, 최항준 (201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 의사소통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7(3), 365-384.
- 정옥분 (2004).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혜진 (2011). 가정에서의 영아의 문해 환경과 언어발달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2015).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2014). 아동발달. 서울: 정민사.
- 조성연 (2005).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신정.
- 조성연 (2006).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실습과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3급 보육교사양성과정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연구, 2(1), 45-69.
- 조혜진 (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

논집, 11(2), 237-262.

- 주영은, 성영화, 이숙자 (2012). 아동건강교육. 서울: 공동체.
- 최지현 (2012).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양 (2001).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인식과 보육환경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정화, 황혜익 (2012).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 73-103.
- 한유미, 오경숙(2010). 영아반 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5, 291-309.
- 형근혜 (2006).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익, 김병만, 김미진 (2011). 어린이집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원장과 교사이 인식 및 요구도. 생태유아교육연구, 10(3), 43-65.
- 황혜익, 송연숙, 정혜영, 남미경, 유수경 (2015). 보육교사론. 파주: 정민사.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Feinman, S. (1992). *Social referenc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infancy*. New York: Plenum.
- Piaget. J. (1977). *The essential Piaget*. New York: Basic Books Inc.
- Raikes, H. H, & Edwards, C. P. (2009). *Extending the dance in infant & toddler caregiving: Enhancing attachment & relationships*. Baltimore. NL: Paul H. Brookes.
- Recchia, S. L. (2012). Caregiver-child relationships as a context for continuity in child care. *Early Years*, 32(2), 143-157.

ABSTRACT

A Study of the Difficulties, Expectations, and Rewarding Aspects experienced by Teachers in 0-year-old Infant Classes

Park na-rae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experiences of teachers in 0-year-old infant classes, with a view to identifying the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their expectations and needs as teachers, and the rewarding aspects of their work as infant class teachers. To this end, this Study asks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eachers in infant classes consisting of 0-year-old children?

Second, what are their expectations and needs as teachers in infant classes consisting of 0-year-old children?

Third, what are the rewarding aspects of their work?

For this Study, 10 day care center teachers who teach or taught classes for 0-year-old infants were interviewed. A total of 20 interviews were conducted between May 2015 and August 2015. Each participant was interviewed twice with each session taking around 60 minutes,, and additional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needed. In addition, the researcher wrote journals and used them to provide significance to the overall features of this Study. The data gathered from the interviews and journals were categorized through multiple reviews. To enhanc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firmed by the participants and verified through a process of advice and consultation with infant education exper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erms of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Firstly, the teachers reported various difficulties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infants. Those difficultie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s: the difficulty with forming attachments with the infants; the difficulty with communicating with the infants whose depend on crying to express themselves; and the difficulty with supporting their daily and basic needs. The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came from the lack of practical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s.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accommodating the needs of the individual infants regarding naps, meals, and diaper changes. The participants also

expressed their fear about being misunderstood or subject to suspicion for even the slightest incident, due to the series of recent child abuses reported through the media. They also felt powerless or skeptical about their work as teachers when classes do not proceed in the way they planned and expected, or they have to take care of repetitive care works required of them.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 who are indifferent or uncooperative toward their children, or place excessive demands exceeding the teachers' expectations.

Secondly, as for the teachers' expectations and requirements to reduce the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the participating teachers wanted change of perception toward teachers in infant classes, training programs and guidelines for infant class teachers,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infant care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With regard to the change of perception, the teachers wanted more attention and understanding towards 0-year-old infants, and appreciation for the expertise of teachers in 0-year-old infant classes. They also expressed their need for training programs designed to help teachers accommodate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ities of 0-year-old infants distinguished from 1 or 2-year-old infants. They also wanted practical guidelines which would alleviate the fear felt by would-be teachers and prevent the possible confusion about teachers' roles experienced by teachers in the field. The teachers' expectations and needs regarding their working environment included adjustment of teacher-infant ratio, provision of substitute teachers to share the burden of all-day care, and financial grants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infant

class teachers. The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hope that these changes will improve the quality of infant care and result in a care environment which satisfies both teachers and infants.

Thirdly, the rewarding aspects of their work as teachers included: the experience of sharing their living with the infants as their “second mothers,” the interactions with team-teaching colleagues who empathize with them, an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who trust and support them. Teaching infants who follow them as if they were their own mother, teachers in 0-year-old infant classes are moved by the moments of growth and change they witness from the infants. They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t creating something out of thin air, and find themselves rejuvenated when the infants are happy. They also reported their experience of growing with their colleagues in the team-teaching programs as they teach classes together, learn from each other, and make up for the others’ weaknesses. They also feel happy and proud when parents pass them heart-felt words of gratitude and they feel they are raising the infants together with the parents. Those experiences, they report, give them strength to overcome the myriad difficulties they face as infant-class teachers.